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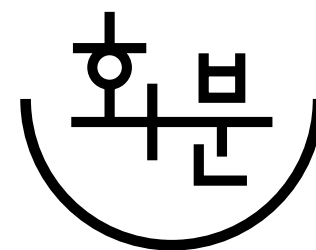
HCF MAGAZINE

2021 SUMMER



VOL.51 | HWASEONG NOW





HWASEONG NOW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이 도시의 안에서, 또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화성의 '지금 이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예민한 촉수로 탐지한 화성의 모습에서 내가 밟고 숨 쉬는 이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해 보자.

CONTENTS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제부도 예술섬 프로젝트

The 담다 예술을 담다

10 FOCUS

화성시 예술가를 작업실에서 만나다
2021 화성예술플랫폼

14 INTERVIEW

타악기 연주자 진유영
마음을 노크하는 소리의 시간

18 COLUMN

문화도시는 문화시민이 만든다
문화도시, 화성

22 TALK

가치 있는 문화생활
솔터공방 민홍지 대표

26 LIVE

신도시의 삶과 공간을 탐구하는 연구실
김지은 작가의 방

The 가다 공간을 가다

32 WALK

도시를 만들어 가는 기억들
시작하는 사람, 천경우 작가

38 FEATURE

올 여름을 책임질 문화바캉스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문화 데이트

42 TICKET

2021 동탄아트스페이스 특별기획
READY, SET, ART!

46 SKETCH

화성을 그리는 방법
그 여름 바닷가에서

48 CHECK

지속가능한 화성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로의 한 걸음

The 하다 함께 하다

52 HELLO

지금의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교육운영팀 이명희

56 LIST

우리 동네 책방지기의 추천리스트
화성인의 책을 만나보세요

60 PEOPLE

화성인의 도시
나의 도시, '화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64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소식

70 PLACE

배포처



Summer means happy times
and good sunshine.
It means going to the beach,
going to Disneyland, having fun.

여름은 행복한 시간과 아름다운 햇살을 의미한다.
즉 해변으로, 디즈니랜드로 떠나 즐기는 것이다.

— Brian Wilson



화성의 한 조각

모든 것이 혼해진 세상이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는 시대의 구호가 되었다.
 하지만 제부도 아트파크는 하루 두 번,
 바다가 허락하는 때에만 찾아갈 수 있다.
 마치 빵 나오는 시간이 정해진 유명 빵집 같다.
 물때를 검색하고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잘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제부도 아트파크에 간다는 것은 잘 쓰지 않던
 감각을 깨우는 일이다. 물론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예술적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덤이다.





화성시 예술가를 작업실에서 만나다 2021 화성예술플랫폼

누군가가 '예술가'라고 하면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 같은, 무엇인가 독특함을 가진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자신만의 생각, 정신 또는 가치관을 어떠한 예술의 장르로, 자기만의 작품으로 표현하는 그들이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은가? 우리 주변, 화성에서 거주하거나 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그들의 작업실에서 만날 기회가 있다. <화성예술플랫폼> 오픈 스튜디오가 바로 그것. 우리 동네 예술가와 소통하며 색다른 예술 체험 속으로 빠져보자.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사진 차유나(기획홍보팀)

<2021 화성예술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통해 화성시에 있는 다양한 예술가 작업실들의 문이 올해도 활짝 열렸다. <화성예술플랫폼>은 화성시의 예술가와 그의 작업실, 예술 공간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젝트이다. 2017년 12명의 지역작가들과 경기문화재단의 <옆집에 사는 예술가>로 시작했고, 2018년부터는 화성시문화재단만의 색깔로 분화한 프로그램이다. 초기에는 시각 예술가들이 참여했으나 차츰 범위를 확장해 공연, 자연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했다. 첫 사업 이래 총 44명의 예술가, 약 800여 명의 시민 참여자들이 함께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예술가 작업실 등을 투어하는 형식으로 사전 신청한 시민들이 정해진 집결지에 모여 버스를 타고 그날의 예술가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라 여겨지는 작업실에서 예술가의 작업 방식뿐 아니라 일상, 취향 등을 알아볼 수 있다. 게다가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한 작업의 결과물로 전시회를 개최하여, 단순한 '원데이 클래스' 그 이상의 큰 의미를 더한다.

<2021 화성예술플랫폼>은 총 10회로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환경과 일상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환경과 자연을 지켜야한다는 의식은 높아졌지만 미래의 방향 및 실천방법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자연과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야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REVIEW

2021년 첫 번째 <화성예술플랫폼>은 5월 22일 자연미술 분야의 황예지 작가와 함께 도심 속 숲, 반석산으로 힐링 여행을 떠났다. 자연에서 영감받는 것을 즐기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는 것을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황예지 작가는 자연물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자연을 발견하는 시간과 폴라로이드 사진과 자연물, 섬유를 활용한 보태니컬(botanical) 드림캐처 손작업을 함께하며 답답한 일상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목적지는 5월 29일, 정남면의 양경철 도예가의 작업실이다. 오래도록 머물며 없어지지 않는 것을 고민하는 양경철 작가는 고(古) 백자 위에 어두운 금속질감의 흙을 덧붙이는 작업을 주로 한다. 전통적, 현대적 기법 및 새로운 기법을 접목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익숙하고 사소하지만 오래된 것이 주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준비했다.

지난 6월 5일에는 기배동에서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는 진유영 타악기 연주자를 만났다. 타악기, 사물, 쓰레기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유영 연주자는 그 소리들로 고민과 감정을 표현하고 공연을 통해 관객과 교감한다. 이번에도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악기부터 쓰레기까지 연주해보고, 함께하는 게임을 통해 모든 소리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선사했다.

상반기의 마지막, 6월 12일은 남양읍의 유상선 회화작가에게로 향했다. 오랜 직장생활 후 꿈꿔오던 전업작가로의 길을 택한 유상선 작가는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우리 삶과 닮아있다 느끼며 다양한 방식으로 해바라기를 그린다. 커피콩, 물감 등을 활용하는 작가만의 독특한 방식을 공유하며 일상 생활의 소품도 예술작품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PREVIEW

올 하반기, 6회차의 색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첫 목적지는 7월 17일 팔탄면으로, 온도의 조절을 중시하는 전통 도예방식을 고수하며 모험과 도전을 이어오는 3명의 작가가 협업하고 있는 일석도예를 만난다. 일석도예에서는 도예의 기술, 흙과 재료 작가의 감수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한다. 이어 7월 24일 자연미술 분야 임승균 작가와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고 자연 속에서 마음 쉼터를 찾는 시간을 가진다.

여름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9월 4일, 디제이 SEFO와 병점동 작업실에서 다시 뜨거운 계절을 느낄 것만 같다. 즉흥적인 디제잉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전자악기도 사람의 감정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이어지는 9월 11일 향남읍의 민홍지 작가는 공간과 공간을 열고 닫음으로써 경계 혹은 통로를 만드는 '문'의 양면성에 집중해, 한옥의 창살과 살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9월 25일 석동미 회화작가는 동탄 'Ivy Lounge'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깊은 연결고리, 꿈을 싣고 돌아오는 부메랑을 주로 작업한다. 작품이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다하기 위해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작가는 부메랑을 소재로 꿈을 담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마지막 목적지로는 10월 2일 동탄의 김현중 회화작가 작업실로 향한다. 김현중 작가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현대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된 판·페인팅 작업을 구현한다. 이번 시간에는 부드러운 스퀴지 물감의 자유로움을 투명 아크릴에 구현하는 기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나가는 작업을 함께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수록 예술의 영역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만 같다. 문화예술이 얼마나 우리 일상에 큰 즐거움이고 또 위안이었나를 고민해보는 요즘이다. <화성예술플랫폼>을 통해 흔히 접할 수 없는 예술가의 시선과 생각을 들어보고, 그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그들의 방식으로 함께 작업 해보면서 내 안의 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지친 일상 속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가갈 힘을 얻어 보는 것도 좋겠다.

※ 51호에 실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악기 연주자 진유영

소리가 꺼진 노래방 기계 앞에서 노래의 진행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가사를 보며 리듬과 소리를 상상했던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 아이는 클래식 타악기를 전공하고 현대음악을 배우기 위해 독일로 떠났다. 외롭고 힘든 이방인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면의 소리와 함께 돌아온 진유영 타악기 연주자. 그를 따라 낯설고 신기한 현대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글 김은주 사진 김영삼

마음을 노크하는 소리의 시간

안녕하세요 연주자님, 먼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클래식 타악기를 기반으로 현대음악을 하고 있어요. 현대음악 중에서도 주로 하는 것은 뮤직테아터(Musiktheater)라는 분야입니다. 연주할 때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어느 정도 액션과 함께 연주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곡을 쓰면 협업해서 초연을 하기도 하고요.

뮤직테아터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행위예술, 퍼포먼스쪽으로 가까워요. 아방가르드하기도 하고.

공연 영상을 찾아보고 모노드라마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연주를 하면서 그 소리에 감정을 실어 몸과 표정으로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요. 특히 <이방인의 일기장>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작품은 저의 독일생활을 갈무리하는 공연이었어요. 2013년부터 작년까지 거의 7, 8년을 머물렀거든요. 제 이야기를 엮을 수 있는 작품을 고른 거라 아마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소리로 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적 달성을 한 것 같네요(웃음).

특히 마지막에 쓰다듬는 장면은 치유하는 것 같았어요. 작가님이 그동안 힘들었던 자신을 정성스럽게 쓰다듬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 그런 느낌으로 한 건데 잘 봐주신 것 같아 고맙습니다.

타악기는 남성적인 악기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첫 시작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였어요. 전학을 가서 적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해볼래 하신 거죠. 아직 어려서 타악기를 권하신 건데, 나중엔 행진곡의 똑같은 리듬만 하니 좀 지루해서 그만 뒀어요. 그러다 중학교 때 공부는 아닌 것 같고(웃음) 다시 하고 싶어져서 예고로 진학했어요. 아버지가 해병이셔서 어릴 때 작은 도시에 살았는데 엄마와 클래식 공연을 엄청 보러 다녔어요. 그런 영향도 많이 받은 거 같아요.





©소정현

소리에 민감한 편이신가요?

소리에 민감한 건 제 기질인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굉장히 예민 하거든요. 남들이 그냥 흘려 듣는 소음을 하나의 '소리'로 듣고는 해요. 그리고 그런 소리에 감동을 받아요. 그 대신 어떤 소리는 평범한데 듣기 힘들어요. 창문 닫는 소리 같은 거. 이런 사람이 엄청 큰 소리가 나는 타악을 전공했으니 아이러니하죠(웃음). 그래서 지금은 그 중에서 가장 작고 섬세한 소리를 계속 연구 하는 것 같아요.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면 악기를 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노크하는 느낌이 들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말이지요.

타악기를 배울 때는 연습을 혹독하게 했었어요. 악기를 사정 없이 찢어져라 두들겨 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악기는 도구 일 뿐이고, 나는 이 악기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독일에 유학 가서 처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독일은 타악기에 정말 거의 다 동물의 가죽을 쓰는데요 교수님이 이걸 만져보라고, 다 살아 있는 생명이었다, 우린 이 악기들에 대해서 정말 리스펙트, 존중을 해야 한다, 그러시는 거죠. 악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타악기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특이하게 본인을 '쓰레기 소리 수집가'라고도 소개하시더군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독일에서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었을 때 한국에 잠깐 들어오게

되었어요. 유럽에서 활동하던 앙상블의 정말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있던 때라 마음이 바쁘고 복잡했죠. 그런데 병원에서 갑상선암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빨리 수술 받고 가서 공연준비를 해야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어요. 그 힘든 순간에 우연히 길에 죽어 있는 매미를 보았는데, 그때 제가 저 스스로를 너무 오랫동안 버리고 살았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본인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 말이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소리를 제가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전까지는 목표만 보고 나를 갉아먹는 방식으로 달려 왔었 거든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 했죠. 그러면서 '버려진 물건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쓰레기들이 악기로 변신했을까요?

이 쇠붙이는 공사장에서 버린 것에 구멍만 뚫어서 매단 것이거든요. (두드려보며) 이런 소리에 감동 받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진 것이지만 악기로 쓸 수는 있으니까. 또, 저희 외할 아버지가 이것도 악기인 것 같다고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도 있고, 여기 큰 조개껍데기도 있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아프고 나서 아빠랑 손 잡으면서 산책을 했거든요. 지금은 또 안 그러는데(웃음). 그때 하나씩 주워서 만난 물건들이예요. 언젠가 저 물건들을 연주 안 해도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빨리 닳아 없어졌으면 싶기도 하고요.

저 사물들과 대화하는 게 치유이고, 그 치유가 언젠가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하신 거죠?

네, 맞아요. 저는 항상 제의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연을 하거든요. 저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나의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애도랄까요.

네 그렇기도 하죠. 위로하고 떠나 보내는 의식인 거죠.

이번에 화성시문화재단과 함께 <화성예술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열 분 정도가 이 작업실에 오셨어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성인 참가자들과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제가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해드리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밥벌이가 되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그 질문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웃음). 4시간 정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분이 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의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참 감사했어요. 음악을 머리로 이해 하고 자꾸 분석하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분은 그런 자세를 풀고 그냥 몸에 그냥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고 느끼신 거죠. 몸에 힘을 빼고 그냥 들으면 쓰지 않던 다른 감각이 열리거든요. 저는 제 음악이 명상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분은 처음엔 되게 좀 팔짱 딱 끼고 그런 자세로 계셨어요. 그런데 하시면서 점점 몸을 앞으로 쑥 기울이면서 나도 이렇게 재미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보람이 느껴지시겠어요.

맞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그 시간 이후로 이 분들이 소리를 그냥 듣지는 않는다 하는 건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선인장도 혹시 악기의 자격으로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존 케이저란 음악가가 알려준 건데요. 선인장 위에 마이크를 붙이고 털을 하나씩 튕기면 정말 재미 있는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도레미파 음정을 다 찾았어요. 공연할 때 청중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거예요.



소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미지의 소리를 발견하는 탐험가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물로부터 소리를 뽑아내는 그 순간 내면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소리를 '낸다'가 아니라 '뽑아낸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쭉 뽑아내듯이요(웃음).

사물에서도 소리를 뽑아내지만, 사람들의 내면에서도 자신이 몰랐던 소리를 뽑아내시는 거 같아요. 저도 여기서 소리를 들으니 나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11월쯤에 흙으로 하는 공연을 선보일 것 같아요. 타악기는 물성에 따라 흙, 나무, 가죽, 금속 등으로 나뉘는데 이 소재별로 시리즈를 하고 싶거든요. 첫 시작으로 흙의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일단 3명의 작곡가에게 곡을 부탁한 상태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도시는 문화시민이 만든다 문화도시, 화성

글 안영노

행정과 공공기관, 공공시설과 중간 지원조직이 모두 문화적인 도시를 위한 시민들의 활동에 문을 열어야 한다. 화성시가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해야 할 노력도 바로 이것이다. 문화재단이 해야 할 노력도 이것이다. 시민은 그 안에서 책임과 봉사와 활동을 도모하되,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정도로 열심히면 좋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이런 노력이 지역에서 도시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느끼게 될 날이 곧 온다. 그 순간 밖에서는 ‘시민문화가 형성되는 곳, 화성’ 이렇게 부를 것이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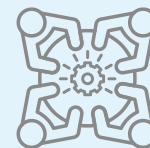
도시란 무엇인가? 곧 시민이다. 시민이 곧 도시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면 시민이 건강해야 한다. 또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은 바람직한 시민이 보여준다.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시민이 활력있게 움직여야 한다. 시민이 도시를 만들고, 그런 도시가 다시 시민을 만든다. 그 도시의 모습은 그 시민을 보면 알 수 있다.

문화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문화시민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이어주기만 해도 된다. 문화도시는 문화시민이 만든다. 그렇다면 문화시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문화적인 시민은 문화적인 도시에서 나온다. 우리가 그 도시에서 문화적인 분위기, 문화적인 관습, 습속, 전통 같은 것을 만들어 내야만 그것이 배경이 되어 문화적인 시민들이 키워진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문화시민이 자란다. 의식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짜서 문화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다. 문화도시는 문화시민이 만드니까, 문화적인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문화적인 도시 분위기부터 짜나가야 한다는 역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도시의 분위기를 짜나가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많은 사람들 즉 시민이 함께 이뤄 내야 한다. 5년, 10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때 시민들이 ‘도시문화’를 형성해 나간다고 말한다. 결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도시문화를 형성하는 활동이다. 시민들이 시간을 두고 해나가는 활동이므로, 도시를 발전시킬 ‘시민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시민문화를 형성하는 도시계획을 짜는 것이 바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다.

정책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사업이 아니다.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기획자와 예술가가 주도하는 사업도 아니다. 문화정책상 문화예술진흥과 지역문화발전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재단이 이미 수행하고 있다. 중복사업이 될 수 없다.

문화도시 조성정책은 시민이 주도하여, 그 지역 특유의 문화로, 도시 전체의 발전을 꾀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지역의 일부특구나 중점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시민 전체가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추진위원회와 시민협의체는 도시발전위원회 급의 위상을 가진다. 시민들이 건강하게 도시경영을 고민해야 한다. 힘든 일이지만 성패를 떠나 이 고민과 토론, 의견의 교환만으로도 문화적으로 성숙한 도시가 된다. 그러니 세간의 말로 ‘남는 장사’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일종의 도시계획을 짜는 것이다. 시민들에 의한 도시계획이다. 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을 행정과 전문가가 짜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참여, 진정성, 심사숙고를 요한다. 힘들지만 민도가 높아지는 학습효과가 있다.

또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일정 구역이 아닌 전 지역의 도시발전계획이고,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 분야, 영역을 포괄하는 전 시민의 참여를 통한 도시발전 계획이어야 한다. 계획은 시민참여, 민과 관의 협력, 민간주도의 세 가지를 담아야 하며 이 세 가지를 원탁과 같은 시민소통의 장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문화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시민을 통합하여 도시발전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을 방법과 자원으로 삼는다. 넓은 의미의 문화자원과 문화활동들을 창의적인 도구와 활용할만한 가치있는 수단으로 삼는다. 한마디로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시민이 주도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역발전에 효용있게 활용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도시계획(Urban plan)이라 하였는데, 문화를 통해 도시를 발전시키는 계획을 문화계획(Culture plan)이라고 한다. 문화예술 발전계획이 아니라 도시발전계획에 해당한다. 구미에서 얘기하는 문화계획은 문화예술과 같은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집단 창의력을 발휘하는 소통을 하고 공동 작업을 통해 시민으로서나 문화활동가로서나 성장하는 휴먼웨어를 포함한다. 시민들이 관계 맺고, 공동 작업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과정 자체를 문화라고 정의한 것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도 이러한 문화계획이다. 문화를 통해 일정구역의 도시재생을 하는 것을 문화재생 혹은 문화적 도시재생이라고 부른다. 문화를 통해 전 도시의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을 문화계획, 즉 문화적 도시계획이라고 부른다.

시민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문화를 통한 도시계획이다. 또 하나는 시민에 의한 도시발전의 설계다. 문화도시 조성정책은 이를 위하여 세 가지를 강조한다. 먼저,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 결정한다. 다음으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이 된다. 끝으로, 문화를 통해 도시를 발전시킨다. 물론 이때의 문화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휴먼웨어다. 문화도시 조성정책의 키워드는 '문화'와 '도시'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시민'이라는 제3의 키워드다.

추가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시민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특성화된 도시문화를 자리 잡게 한다. 그래서 일종의 시민 캠페인이다. 공식적인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 시민들의 활동이 중요하다. 문화활동가도 길러내야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활동가를 배출해야 한다.

둘째,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도시발전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다. 즉 도시경영 시민주체들이 만들어지고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민원탁, 자원활동과 재능기부 등을 펼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있어야 예산이 없어도 지속가능하다. 보통 공식적인 추진협의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외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들이 복수로 만들어져 연합해야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든 올 수 있도록 자리를 개방하는 절차도 운영해야 한다. 5년 간 지원하는 정부사업이 끝나고 예산 없이 시민들이 경영하는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다.

지역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문화도시에 도전하는 모든 곳들이 갖는 보편적인 과제다. 그런데, 도시마다 달리 해내야 하는 특수한 과제들도 있다. 지역 특성화라고 부른다.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이것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모토다. 그 지역만의 과제를 갖게 되고 그것을 주제로 놓고 시민들이 함께 도시발전의 공동 작업을 한다면 지역 고유의 가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 도시의 독특한 풍토, 시민활동의 고유한 풍조, 특유한 문화적 풍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의 문화자원을 살리는 것은 기존의 문화특화 지역사업에서 해 온 일이다. 차별화된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해 온 사업이다. 반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자원보다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기존의 역사전통문화나 지역예술, 문화관광자원을 활용은 하되 지금부터 새로운 시민문화, 독특한 도시문화를 파나가는 데 더 관심을 가지는 장기 사업이다.

문화도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화예술이 특성화된 도시라고 답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문화적 도시는 삶의 질이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잠재력 있는 문화자원이나 잘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예술자원보다는 시민문화나 도시문화를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활동에서 비롯된다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지역만의 고유성 역시 시민들의 도시 활동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점이 이전의 사업들과 참 다르다.

도시



이 사업의 핵심은 문화와 도시다. 문화는 지금부터 시민이 형성해나가는 것이고, 도시는 시민들이 직접 발전시키는 것이다. 시민의 권리와 함께 시민의 책임을 요한다. 그러다보니 이 사업의 세 번째 키워드는 시민이다. 이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은 시민의 등장에서 나온다. 이 사업의 네 번째 요소를 넣는다면 아마 지역일 것이다.

모든 도시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이 등장하고, 몸소 봉사하고 스스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모든 도시는 특별하니 우리 지역만의 풍속과 풍습을 창조해 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화를 형성해 나가 지역다움을 재창조하자는 논리가 성립한다. 지역을 특성화하는 것도 문화자산보다는 시민이 도시 전체에서 형성해 내는 문화에 따르자는 것이다. 선진적인 사업인 만큼 복잡한 것도 많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에 관한 법으로 정한 국책의 법정사업이다. 그만큼 이 실험적 취지가 정책 발전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시민이 할 일은 원탁에 참여하고 협의체와 결사체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특히 시민 해설사, 진행사회자, 모니터링단, 영상 피디, 자료 수집가, 기록자, 여행 가이드, 기자단, 홍보단, 정책 서포터즈, 옴부즈만, 교육자 등 다양한 자원봉사와 재능기부에 참여하기를 권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하도록 기대 받고 요청 받는 일에서, 봉사를 즐기고, 활동을 누렸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지만 시민이 곧 도시다. 도시는 바로 시민 그 자체다. 권한보다 책임을 지는 시민,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활동을 주도하는 시민, 행정에 요청하기보다 봉사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시민, 그것이 좋은 도시의 모습이다.

끝으로 '문화적인 도시'란 무엇일까. 문화적이란 사람들이 교양을 얻고 성장한다는 뜻이 있다.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는 문화적 도시다. 또 문화적이란 사람들이 깊이 자주 소통한다는 뜻이 있다. 공동 작업을 하며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생활 속에서 공동체가 되어가는 시민들은 문화적이다. 결국 문화적인 도시는 시민이 성장하고, 소통을 잘 하는 도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길러내고 서로 이어만 줘도 문화도시로 성공한다.

안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전 서울대공원장, 소셜벤처 양성가, 문화기획 전문가 등 다방면의 활동가이다.

가치 있는 문화생활
청량감 가득한 나무 향기에 취해
슬터공방 민홍지 대표

화성시의 생활문화인으로의 삶은 어떨까. 손재주가 남달라 커다란 한옥에서부터 아기자기한 가구들까지 무엇이든 똑딱 만들어내는 ‘금손’을 보유한 크리에이터 민홍지 작가. 목공방인 슬터공방을 운영하는 그는 화성시에서 문화·예술적 역량을 발휘하며 자신만의 생활문화 분야를 구축해 가고 있다. 화성시문화재단의 <2021 화성예술플랫폼>과 <2021 화성시 생활시장화인>의 시민운영자로 활동하며 화성시 생활문화인으로 활동 반경도 넓혀가는 중이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나무를 만지면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민홍지 작가의 화성시 생활문화인으로의 삶을 엿보았다.

글 김상미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무를 통해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요

민홍지 작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의 솔직함을 담고 싶은 가구를 제작하는 슬터공방의 민홍지입니다.

나무를 만지는 목공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목선을 제작하셨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목수의 길을 자연스럽게 걷게 되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부두에서 현장을 이끌며 목선을 수리하시던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목선은 더는 제작 및 복원 사업을 하지 않아 한옥 대목수 일을 배우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옥이라는 건축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어느 시원함 못지않은 청량감이 가득한 나무 향에 취해 향수가 따로 필요 없는 목공일을 향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게 되신 계기와 지금 진행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한옥 대목수로 일을 하면서 전문적인 목수로 성장하고자 대학원에서 건축설계를 전공했어요. 이후 건축 문화재 보수를 하게 되면서 창호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전통창호의 종류 중 하나인 꽃살 창호의 꽃 조각에 반해 창호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제작을 겸할 수 있는 저만의 작업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전통가구에 대한 수리도 맡게 되면서 전통가구의 매력을 발견해 지금은 전통적인 기법을 대입한 원목가구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공방에서 주로 하시는 수업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현재 대학교에서 건축학과 강의를 맡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공방에서 건축학과 학부생들의 인턴십 학점 교류 교육으로 전통창호 제작과 원목가구 제작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민들을 위한 수업으로 도마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와 원목가구를 직접 제작하는 목공 수업을 운영 중입니다. 기성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겠지만 직접 목재를 선별, 재단하고 자신만의 디자인과 공간에 맞는 맞춤 가구를 만들어보는 것에 대해 공방 수강생들의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에서 화성으로 활동지를 옮기셨는데, 화성시 생활문화인으로 느끼는 장단점을 말씀해주세요.

작년 봄에 서울에서 화성 향남으로 공방을 옮기고 나서 이제 1년이 되었는데 이제 1년이 넘어갑니다. 처음 홍보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화성시생활문화센터를 알게 되어 시민 목수로 목공방 수업을 진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영상 수업으로 대체됐지만, 공방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활동 중인 서남부 지역의 대부분 작가는 본인 작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 작가가 공방과 작품에 대해 홍보를 할 기회와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올해는 <화성시 생활시장화인>과 <화성예술플랫폼>에 참여하시는데, 계기가 있을까요?

<생활시장화인>은 화성으로 작업실을 이사하고 홍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알게 됐어요. 시민이 직접 운영자가 되어 제품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 마켓을 형성하는 화인이, 화성에 처음 발을 딛는 저와 함께 성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화성예술플랫폼>은 화성시 예술가와 작업실 등 예술 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시민이 예술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 제 전공인 전통창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 싶었어요. 감사하게도 기회가 주어졌고 오는 9월 11일 솔터공방에서 전통창호 이야기를 해 볼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생활문화인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생활시장화인>이 공방 등을 운영하는 작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 <생활시장화인>은 생활문화인들이 직접 제품을 제작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직거래 마켓을 오픈해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제품의 홍보와 판매가 어려웠던 공방들에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할 기회의 장을 열어 주었죠. 생활문화 전시장 'ikeyo' (이케이오)를 통해 오프라인 소품 형태의 전시와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설 전시 프로그램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주었어요. <생활시장화인>은 지난 2020년 코엑스에서 열렸던 'K-핸드메이드 페어'와 수원 메세에서 열린 '2021 핸드아티코리아'에 참여해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었고 이는 화성시 생활문화인들의 공방 홍보와 제품 판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공을 하면서 뿌듯했던 순간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저는 목공을 하면서 제작했던 모든 작품이 다 기억에 남는데요. 이런 작품 활동과 여러 작업은 제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중 유독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3년 전 장애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한 일입니다. 장애가 있었던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처음 수업 의뢰를 받았을 때는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업을 시작하니 학생들에게서 작은 소품이라도 꼭 만들어보고 싶다는 간절한 눈빛을 보게 됩니다. 그날은 제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화성시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학교의 목공 수업을 진행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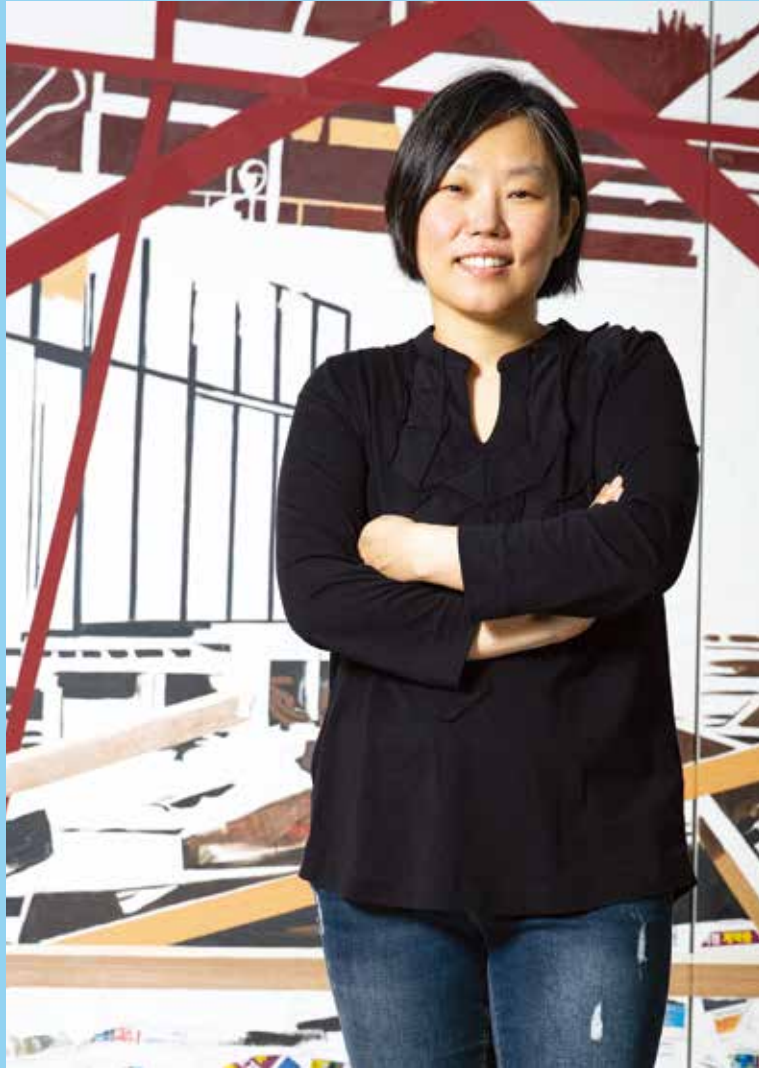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화성시에서 생활문화인으로 실현하고 싶으신 꿈은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장애인 목공 참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목공 수업이 쓰지 않았던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도 있기에 화성시에 있는 특수교육 시설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목공 수업을 진행해 그분들과 만든 작품을 화성시 관내에 전시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보고 만날 기회가 적어지는 요즘 저 또한 비대면으로나마 화성시민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솔터공방'을 검색하시면 저의 여러 활동과 가구제작에 관련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민들에게 솔터공방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는 장소가 되길 바라며 이곳, 화성에서 믿음직스러운 작가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김상미

프리랜서 작가이자 화성시문화재단 동탄아트스페이스 전시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다. 신문사 기자에서 결혼과 함께 프로주부로 지내다 익숙함을 견어내고, 문화예술 글쓰기, 도슨트 활동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중이다.



신도시의 삶과 공간을 탐구하는 연구실 김지은 작가의 방

도시는 늘 공사 중이다. 빈터에 건물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있던 건물이 어느 날 사라지기도 한다. 공사장의 철제 울타리와 방진막은 일시적인 풍경이면서 일상적인 풍경이다. 그리고 그렇게 연출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간다. 그 이면엔 무엇이 있을까, 도시의 풍경은 어떤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김지은 작가는 그것이 궁금한 사람이다.

글 윤인보 사진 김영삼

당신은 누구인가요?

회화를 중심으로 작업하면서 설치미술도 하고 있습니다. 설치미술은 회화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주제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에서 주로 영감을 얻어 작업해왔습니다. 사람과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사회적 풍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오래 전에 부모님 댁 앞이 개발되면서 분홍색과 연두색 줄무늬의 방진막이 세워진 걸 봤거든요. 그때 저는 '뭔가 무지개떡처럼 생겼네' 했는데 건축을 전공한 사람 말이 그게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것으로 정해져 있대요. 그저 우연히 설치된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행정이나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것들이 많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에겐 너무 당연한 것이 저에게는 낯설고 새롭게 느껴진 거죠. 이전까지 풍경은 그저 풍경으로 봤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 풍경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이 벌어지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풍경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작업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나온 삶을 '소라게 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전에 오랫동안 미국, 대만, 한국의 레지던시에서 입주 작가로 활동했었어요. 그중 일곱 군데에서의 경험을 <소라게 살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쓰기도 했고요. 서른 살 넘어서 디트로이트 외곽의 학교로 유학을 떠났어요. 거기서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 보던 도시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대도시 외곽의 생활양식을 '서버비아'라고 부르는데 처음엔 그 공간이 이국적이고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생긴 예쁜 집이 수백 채가 있고, 똑같이 생긴 쇼핑물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 좀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경험하고 들여다보고 싶었죠. 그러자면 졸업 이후에는 미국에서 체류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레지던시 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무료이거나 생활비를 주는 레지던시에 신청해서 한두 달 단위로 옮겨 다니며 작업을 했어요. 메인주, 버몬트주, 코네티컷주, 네브라스카주, 그리고 산타페에도 있었고, 와이오밍주에도 있었고 많이 다녔죠. 미국에서 만난 친구가 그런 저를 소라게 같다고 하더군요. 소라게는 몸집이 커지면 자신의 몸에 맞는 큰 소라 껍질로 집 옮기기를 한대요. 한 곳에서 공부하고 작업하면서 저 스스로를 키운 다음 조금 더 큰 내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니 '소라게 살이'가 맞구나 생각을 했었죠.





모델하우스 화성시 1, 2020, 리넨에 유채, 130.3x193.9

당신은 어떤 작업을 하나요?

사진으로는 익숙한데 회화로 바뀌었을 때 생경한 느낌을 주는 풍경들이 있어요. 회화는 작가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든 어넌 이미지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 물감을 계속 쌓아서 그리는 과정을 통해 ‘육화시킨다’고나 할까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평범한 장면에 살갓을 입히고 존재감을 불어넣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화는 시인이 시를 쓰는 것과 비슷한 것도 같아요. 글에도 소설이나 뉴스 기사 같이 다양한 글들이 있잖아요. 시인이 시를 쓰는 마음과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마음은, 무언가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회화만이 가지는 매력과 장점을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철거 중인 모델하우스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았어도 들어가보진 않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 다 허물어져 있더라고요. 순간 ‘이건 뭐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 이상향과 같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은 쇼룸이었던 거죠. 마치 연극이 끝난 후의 무대처럼 이렇게 쓰레기더미가 되고, 얼마간 공터로 있다가 또 다른 모델하우스가 들어서겠죠. 그곳에 모든 행복과 미래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곳이 모델하우스인데 결국 본질은 가건물이었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바라보고 그걸 구매하고 하는 여러 상황들을 이 한 장면이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작품을 본 관객들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어떤 장면을 보고는 ‘어, 이거 나 어디서 봤는데’라고 제 작품을 떠올리고는 ‘그런데 그 작가는 왜 그런 걸 했을까’하고 생각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일상적인 대상을 그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작품을 통해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 내고 싶어요.

당신의 작업실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남편과 함께 작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일 년 반 전에 신축건물의 한 칸을 분양 받았어요. 둘 다 큰 작업을 많이 하는데 150호 정도 되는 그림은 천장이 낮으면 작업도 힘들고 나중에 옮기기도 힘들거든요. 여기는 150호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나르기도 편리해요. 작은 작업실 같은 경우는 계단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돌아가지가 않아서 창문을 뜯어서 옮긴 적도 있었어요. 금액이나 관리비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좀 저지른 감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작업을 못하겠구나 싶었거든요. 월세 작업실을 얻으면 매번 옮겨 다녀야 하는데 이 많은 짐을 가지고 어디를 가겠어요. 남편도 이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여기에 터를 잡게 된 거예요. 마침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놀이방이기도 해요. 아이들은 크면 여기를 자기를 연구소로 쓰겠대요.

화성에 온 지는 4년 정도가 되었어요. 화성은 전혀 모르는 낯선 곳이었는데 보니까 일산 같은 곳과 별반 다른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살만하겠단 싶었죠. 낯설지만 편안한 그런 곳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한국 버전의 ‘서버비아’인 것 같아요. 생경함과 안락함, 삭막함과 편리함 같은 것이 공존하는 거죠. 아이들 키울 때 안전하기도 하고 택배 시킬 때 편리하잖아요. 집도 있고 작업실도 있기 때문에 이젠 여기에 터를 잡은 거죠. 서울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런 걸 탓할 게 아니라 화성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해야겠죠.



WALK	FEATURE	TICKET	SKETCH	CHECK
시작하는 사람 천경우 작가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문화 데이트	2021 동탄아트스페이스 특별기획 READY, SET, ART!	화성을 그리는 방법	지속가능한 화성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로의 한 걸음



도시를 만들어 가는 기억들 시작하는 사람, 천경우 작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남양, 송산, 팔탄, 병점, 동탄 등 화성시 곳곳에서는 좀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즉석에서 부탁 받은 시민들은 손바닥만한 종이 카드 위에 하나의 닫힌 선으로 저마다의 어떤 모양을 그렸다. 그 모양은 둥글기도 하고 길쭉하기도 하고 바람이 빠진 풍선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 위에 점을 하나 찍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천경우 작가를 북한산 자락 세검정 인근에 자리잡은 그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글 윤인보 사진 김영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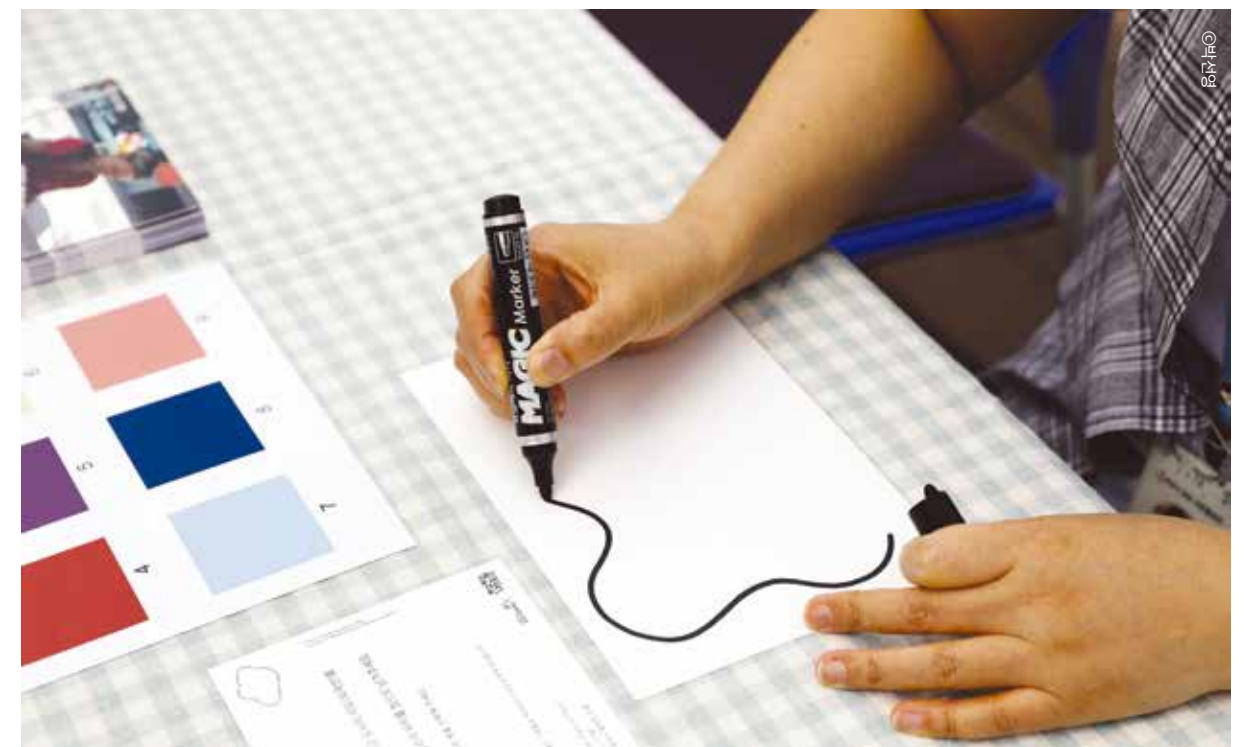
‘플레이스 오브 플레이스’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화성시문화재단은 천경우 작가와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 ‘플레이스 오브 플레이스(Place of Place)’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각자가 알고 있는, 또는 방금 상상해낸 화성시의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그 위에 나만의 특별한 기억이 담겨 있는 위치를 점으로 표시했다. 그것은 실제 화성시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화성’이라는 도시를 지칭한다.

“‘플레이스 오브 플레이스’는 처음 독일의 괴핑엔이라는 도시에서 진행했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도시죠. 그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인식을 환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처음 구상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사실 세상의 가장 중심은 내가 지금 있는 여기이지 남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공간(Space)이 기능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라면 장소(Place)는 그 공간에 누군가의 역사와 의미, 기억이 담겨 있는 곳을 말한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당연히 장소성을 띠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내게 의미 있는 곳이라면 ‘장소 중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린 것은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보물지도이기도 하다.

“화성시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희망을 가지고 이주를 해왔거나 중요한 건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 몸이 지금 위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을 내 손을 통해서 나의 몸 밖으로 표출한 거예요. 도시의 모양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화성시 지도를 검색하려는 분들도 있었죠.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잘 그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점을 하나 찍었어요. 이게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린 사람은 알아요.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곳이거나, 첫 키스를 한 곳이거나, 태어난 곳이거나 직장이거나. 나한테는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기억의 장소이죠.”





©박선영

공동의 기억, 공간의 기억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화성시민들에게 공간에 대한 ‘공동의 기억’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플레이스 오브 플레이스’에는 시민 600명이 참여한다. 어른이 300명, 어린이와 청소년이 또 300명이다.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수 천 명에게 같은 기억이 생기는 셈이다. 이 작품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은 작가로서도 이번이 처음이다.

“제가 이런 작업을 공공장소에서 하는 이유는 공간의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공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참여하신 분들은 잠깐 앉아서 간단하고 재미있는 걸 했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꽤 진지한 질문과 고민이지요. 이 분들이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사는 곳을 다시 보게 되겠죠. 이 기억 속 장소가 나에게 왜 소중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림도 그리고 앞으로 조형물로도 만들겠지만 실제 진짜 작품은 600명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저의 손을 떠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자라날 거예요.”

600명의 기억은 우연으로 조합되는 두 개의 조형물로 만들어진다. 지금은 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완성된 작품은 오는 9월 1일부터 로얄엑스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해서 도시에 남겨두는 건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공공장소에 조형물을 남겨두지 않으려 해요. 중요한 건 과정이고, 물질적인 재료의 힘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의 행위와 기억이 담긴 이 작품의 경우는 조형물의 보존이나 누구의 소유물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이 장소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화성시는 어린이도 많고 인구가 젊어서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구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조형물은 3미터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기억들이 적어도 몇 년은 계속 전해질 테고요.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면 고유의 삶이랄까 운명이 있어요. 9월에 전시를 하고 화성시민과 같이 살아갈 이 작품의 운명이 저는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시작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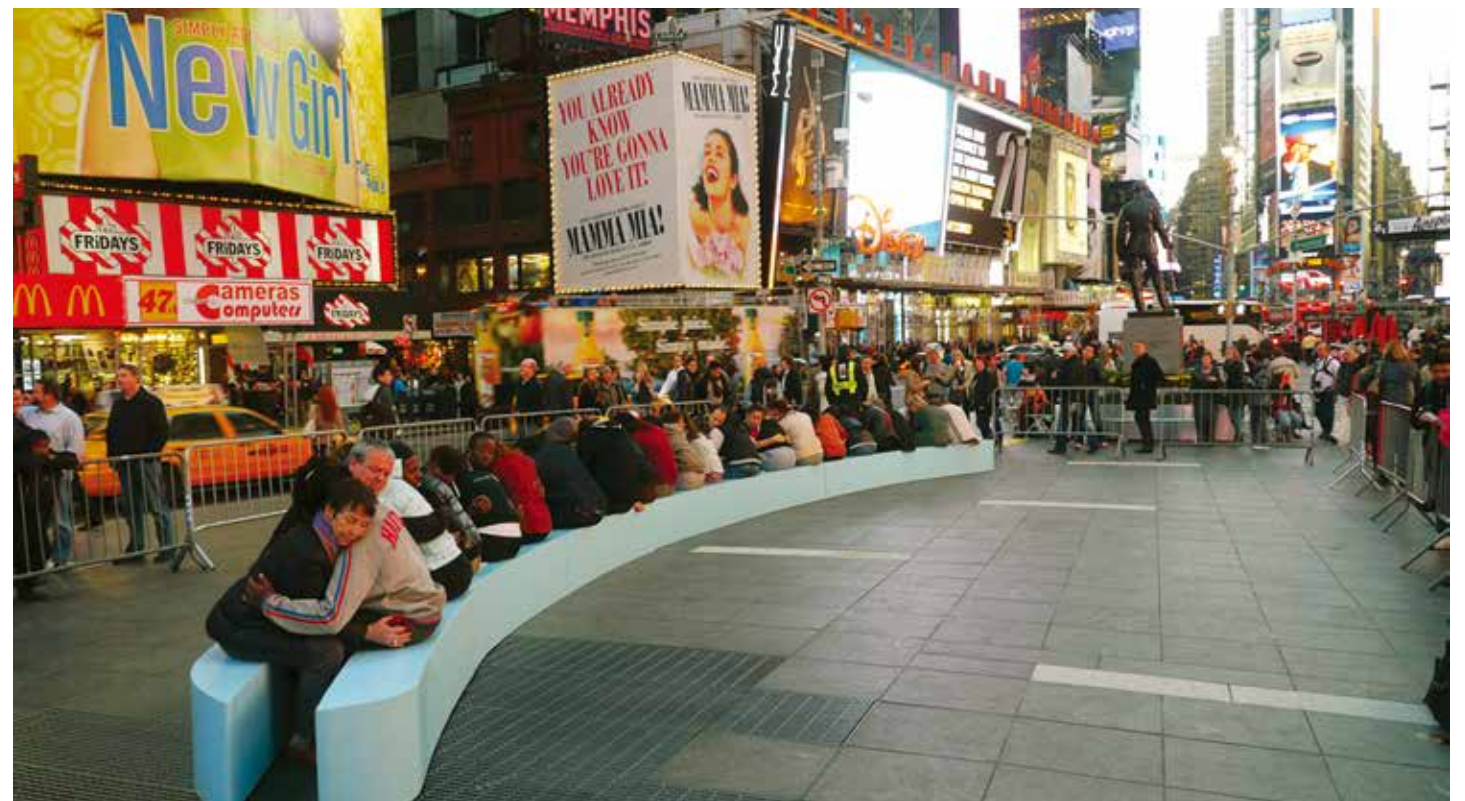
천경우 작가는 90년대부터 한국과 유럽을 기반으로 작업을 해왔다. 시작은 사진이었다. 한국은 물론이고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지금도 학교에서 예술사진을 공부하는 제자들의 조력자로 일한다. 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설치미술이나 행위예술 작업들을 생각하면 쉽게 연결고리가 떠오르지 않는다.

“사진은 대개 결과 위주의 매체예요. 결과가 안 좋으면 아무 것도 의미가 없죠. 촬영하는 과정도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요. 그런데 저는 셔터를 누르기 전, 그리고 누른 후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물건이나 풍경이 아닌 사람과 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뭔가가 감지되고 교감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의 마음이나 기억이 내 작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물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뚜렷하게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사진에는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구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니까 결과로서의 이미지나 조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생겨났어요. 그러다 뭐가 남겠어요. 과정만 남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중심인 작업들을 자연스럽게 시도하게 되었어요. 과정이 드러나고 과정의 경험이 중심이다 보니 사람들은 행위예술이나 퍼포먼스로 규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매체 안에서 무언가를 하겠다 해서 시작한 건 아니예요.”

‘플레이스 오브 플레이스’를 알리는 보도자료에 천경우 작가는 ‘사진작가 겸 설치미술가’로 소개되어 있다.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영어로는 ‘이니시에이터(initiator)’라고 해요. 우리말로로는 개시자, 창시자, 발기인 정도의 뜻이죠. 저는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표현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사진은 제가 가장 오래 사용한 매체이고 설치나 퍼포먼스, 영상 같은 것은 일종의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사진이라고 봐요. 작업의 내용에 따라 어떤 매체로 표현할지가 달라지죠.”

©Versus, Time Square, New York, 2011 / Courtesy of Bernhard Knaus Fine Art, Frankfurt



경계의 확장

그는 서울과 뉴욕, 바르셀로나 등에서 ‘Versus’라는 작품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의 어깨에 서로 머리를 기대고 가만히 앉아 있다. 둘은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고 15분이라는 시간을 보낼 뿐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 낯선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감각할 기회가 거의 없다. 처음 어색하고 불편한 순간이 지나면 타인의 숨소리와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에 대해 생각한다. 그 15분만큼은 타인의 존재에 대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몰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참여자들이 끝나면 저에게 물어봐요. 뉴욕에서 했을 때에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저한테 생긴 이 감정, 이 이상한 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가야 할 마음의 그림이다’ 하고요.”

참여자가 경험한 그것은 타인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내가 확장된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평범함 속에 잠재된 우리들의 비범함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20분간 두 사람의 손을 묶고 악수를 하게 하는 ‘Greetings’나 ‘1000개의 이름들(1000 Names)’, ‘1000개의 답변들(1000 Answers)’ 같은 작품에서도 그는 이런 발견의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이 작업들이 ‘사진의 확장’이라고 한 작가의 말을 어렵פות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카메라라는 기계를 들지는 않았지만 그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진기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억’을 만든다. 참여자들을 낯설고도 이상한, 하지만 진실과 대면하는 상황에 놓는 것은 천경우 작가의 특징이다. 작가는 이런 예술적 공간을 통해 타인에 대해 감각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억이 문화를 만든다

앞으로 화성에서 만날 ‘플레이스 오브 플레이스’를 통해 우리는 천경우 작가의 이러한 마음을 기억에 담아 가게 될 것이다. 끝으로 그에게 화성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화성이라는 도시는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해 있어요. 방학이 끝나면 아이의 키가 갑자기 훌쩍 커있는 것처럼, 화성에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내적으로도 소중하게 잘 자라야 하는 아이 같다고 할까요. 이제는 이 도시가 사람들의 많은 새로운 기억들을 채워가게 되겠죠. 그 중에 영감을 주는 일상의 기억들이 바로 도시의 정체성이자 품격 있는 문화의 자양분이 될 겁니다. 유명한 공연이 도시에 온다고 좋은 문화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일상의 인간적이고 소소한 기억들이 쌓여서 일종의 건강한 생명체 같은 게 자라나는 거죠. 이 도시의 곳곳에서 사람들이 효용성의 이면에 숨겨진 우리 안의 인간다움을 발견하면서 타인과 그리고 자신과의 소중한 관계를 맺어 가길 바랍니다.”

‘이런 거 어때요?’ 하고 전에 없던 질문을 던지는 사람, ‘지금 이것이 맞나요?’ 하고 익숙한 질서에 균열을 내는 사람, 천경우 작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고, 묵직하다. 그는 우리가 숨쉬는 세상과 내 걸을 스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안한다. 따뜻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천경우 작가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미사진상, 브레멘시 공공미술상을 수상했다.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부퍼탈 대학에서 석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화성ICT생활문화센터 개관기념 미디어아트 전시회

ACT GALLERY Season One



©화성ICT생활문화센터



올 여름을 책임질 문화바캉스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문화 데이트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워진 시기,
작년에 이어 이번 여름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된다.
멀리 떠나는 여행이 두렵다면, 가까운 우리 동네에서
새로운 문화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화성시에서 열리는 전시, 공연을 소개한다.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사진 제공 화성시ICT생활문화센터, 소다미술관, 화성시지속발전협의회

※ 51호에 실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부터 예술가들의 전문 협업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다. 화성시 팔탄면의 화성ICT생활문화센터가 바로 그 곳. '액트 그라운드(ACT GROUND)'라는 브랜드명은 'Art Culture & Technology'라는 의미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상징하며, 소공인 공동기반 시설, 미디어랩, 오픈 커뮤니티 공간, 부대 시설까지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픈 메이커 스페이스로 화성시의 소공인과 예술인, 그리고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개관을 기념한 미디어 아트 전시회가 6월부터 8월 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본 다빈치의 작품 '르누와르, 빛의 초대', 팀 보이드의 'Shadow Machine', 양정욱의 '우리는 그 대각선에 대해 설명했다'를 만나볼 수 있다. 대형 스크린과 화사한 조명으로 온 감각의 풍성함과 각 이야기가 주는 흥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전시는 무료이며 화성ICT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actground.or.kr)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언제 2021년 6월 1일(화)~8월 31일(화)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관)
어디서 화성ICT생활문화센터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20
로얄엔컴퍼니 R5 버스 스토어동, 1층)
문의 070-7777-7618

우리 삶에 사랑이 필요한 이유

소다미술관 <LOVE IS LOVE : 밤새워 말해봐도>



©노기환(소다미술관 제공)

언제 2021년 5월 1일(토)~10월 17일(일) (매주 월요일 및 명절 연휴 휴관)
어디서 소다미술관(화성시 효행로707번길 30)
문의 070-8915-9127

우리 삶에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소다 미술관에서 마련한 전시 <LOVE IS LOVE : 밤새워 말해봐도>를 통해 발견할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랑의 모습과 의미를 동시대 예술을 통해 읽어내고, 감각을 깨우는 경험을 통해 사랑의 원형을 발견해가는 전시로, 고상우, 왕선정, 이도담, 임지민, 진유영, 과야, 설은아 총 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사랑을 젠더, 인종, 계층, 권력 등 변모하는 시대적 이데올로기에 가두지 않고, 사랑 그 자체의 가치와 본질을 탐구하는데 집중한다. 특히 설은아 작가의 프로젝트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는 관람객이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직접 음성으로 남기면, 이 진술한 이야기들이 모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로, 관람객에게 몽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인터랙티브 작품부터 라이브 퍼포먼스, 조항사가 제작한 시그니처 향까지, 이 여름 오감을 통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를 만나보자.

팬데믹 시대, 예술 공간의 새로운 변화

소다미술관 <Open Museum Garden : 우리들의 정원>



©소다미술관

언제 2021년 5월 1일(토)~10월 31일(일) (매주 월요일 및 명절 연휴 휴관)
어디서 소다미술관(화성시 효행로 707번길 30)
문의 070-8915-9127

무더운 여름날 지친 일상 속에 초록 심표를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 소다미술관은 지난 봄부터 야외 전시장을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정원으로 변화시켰다. <Open Museum Garden : 우리들의 정원>은 정원가, 디자이너, 예술가 19팀이 모여 미술관 앞마당을 누군가의 달린 정원이 아닌, 관객이 소요할 수 있는 야외 정원으로 변화시킨 프로젝트다. 미술관이라는 용도에서 잠시 벗어나 예술이라는 장르 간의 구분을 넘나들며 팬데믹 시대 지친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이번 전시는 콘크리트 안에 자연을 닮은 정원을 구현하여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한다. 또한 정원 곳곳에 디자이너와 예술가 각각의 개성이 빛나는 각기 다른 스톨 의자를 마련해 관객이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회복이 필요한 순간, '우리들의 정원'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

가족과 함께할 다양한 체험이 한가득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화성시지속발전협의회



도시의 모습뿐 아니라 바다와 숲, 농어촌 등 상상할 수 없이 다양한 환경을 품고 있는 넓디넓은 화성시. 우리지역에서 즐길 거리도 그만큼 다채롭다는 뜻 아닐까? 이번 여름, 가족들과 특별한 체험을 해보고 싶다면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코스에 참여해보자. 시티투어 '하루'는 농원과 농장 등을 찾아가는 농어촌체험, 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목장체험, 미술관 및 도예원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체험, 요트 등을 즐기는 해양레저와 생태체험, 지역의 전통시장을 돌아보는 5일장 투어, 그리고 온천체험과 같은 다채로운 체험이 있는 테마투어다. 동탄, 병점, 봉담, 향남, 남양의 주요거점에서 출발하여 하루 동안 떠나보는 여행이라 부담도 없다. 재미나 감동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배려하고,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여행으로서의 의미 또한 깊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시티투어 홈페이지(tour.hscity.go.kr/citytour) 및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언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어디서 프로그램별 상이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참조)
문의 031-366-4928

MY NAME IS MODOU



2021 동탄아트스페이스 특별기획 READY, SET, ART!

다가오는 여름방학, 넘치는 에너지를 꼭꼭 누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전시에 주목해보자.
동탄아트스페이스 전시장이 재미있는 예술 놀이터로 변신했다!
이번 여름, 이번 전시와 함께 제자리에, 준비, 출발!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사진 차유나(기획홍보팀)

※ 51호에 실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동탄아트스페이스 특별기획 전시 <READY, SET, ART! : 모두와 함께하는 인터랙티브 아트 체험전>이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과 미디어아트에 스포츠를 더해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모두스포츠>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 관람객의 시각과 감성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그래픽 작품,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답답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재미없고 지루한 전시장이 아닌,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즐기는 전시장을 선물해줄 것이다. 전시에 참여한 (주)예술공공은 <2021 거리로 나온 뮤지엄>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총괄기획, 앤서니 브라운, 카림 라시드 등 국내·외 유명 작가,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활발한 미디어아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READY, SET, ART!

전시기간 2021년 7월 1일(목)~8월 14일(토)

전시장소 동탄북함문화센터 1층 동탄아트스페이스(화성시 노작로 134)

관람시간 10:00~17:30

관람정보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www.hcf.or.kr

관람문의 시민문화팀 031-290-4637

화성을 그리는 방법 그 여름 바닷가에서

화성은 바다로 통한다. 도시가 바다를 품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바다는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모습을 바꾼다. 햇살을 따라 물빛이 변하고 바람과 함께 파도의 표정이 바뀐다. 그렇게 한 순간도 같지 않지만 바다는 한결같다. 늘 변화하지만 변함은 없다. 그런 역설이 바다의 매력이다.

에디터 김은주 일러스트 권석란



<제주도 해수욕장>

여름은 종종 청춘에 비유된다. 저마다 제 몸에 지닌 생명의 에너지들로 힘차게 달려 나가고 날렵하게 뛰어 오른다. 한 시절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여름의 청춘은 바라만 보아도 싱그럽다.



©화성시문화재단

채색 방법

재료 태블릿PC, 유성펜, 색연필, 컬러마커, 수채화 물감 등

1 상상하기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 놀러 갔을 때의 신나는 순간과 두 뺨을 스치던 바닷바람을 떠올린다.

2 선으로 그리기

포즈를 취하는 친구들의 장난스러운 표정과 동작, 사진을 찍어주는 친구들의 모습에 집중하며 스케치한다.

3 채색하기

삼페인 빛깔로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수심에 따라 농도를 달리하는 바다의 미묘한 변화를 색으로 표현한다.

지속가능한 화성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로의 한 걸음

코로나19로 배달, 온라인 장보기 및 쇼핑이 일상화되며 엄청나게 배출되는 일회용품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0'에 가깝게 하자는 운동인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바람이 불고 있다. 지속가능한 우리의 화성을 위해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화성시의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소개한다.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ALL바른상점

환경을 위한 올바른 모든 생각

ALL바른상점

동탄 최초로 반송동에 제로 웨이스트 매장, 시바른상점이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없앤다는 제로 웨이스트의 의미에 맞게, 포장지나 용기를 제외한 내용물만을 취급한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대신 모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천연재료를 활용한 물건들도 만날 수 있다. 다회용기를 준비해서 곡류, 친환경 세제나 화장품, 각종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담아가면 된다.

A. 화성시 10용사로 563 1층

(세인트캐슬 타운하우스 정문 맞은편/지하 1층 주차 가능)

O. 화·금·토 12:00~17:00, 수·목 12:00~20:00(매주 일·월 휴무)

내일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노력

우미상점

향남읍에 제로 웨이스트 매장, 우미상점이 새로 생겼다. '우리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곳에서는 설거지 비누, 천연 수세미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데, 이 상품들은 다회사용이 가능하거나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지고 생분해가 가능하다. 미세 플라스틱이나 화학물질이 없어 사람에게도 좋다.

A.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 1길 22-3 1층

O. 화~금 10:00~18:00, 토 14:00~18:00(매주 일·월 휴무)



©우미상점

일회용품이 없는 카페

카페 언커먼

음료를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에 판매하는 카페 언커먼. 텀블러를 두고 왔더라도 대여신청서를 작성하면 예쁜 텀블러를 대여해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다회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레스 빨대와 냅킨 대신 소창 수건을 준비해둔, 환경에 대한 신념이 돋보이는 카페이다. 게다가 커피 맛도 일품. 가지고 온 텀블러는 씻지 않은 상태여도 매장에서 살균과 소독을 마친 후 음료를 담아준다.

A. 화성시 10용사로 349-13 상가비동 108호 카페 언커먼

O. 평일 9:30~18:00, 주말 10:30~17:00(명절 휴무)



©카페언커먼

HELLO

화성시문화재단
사람들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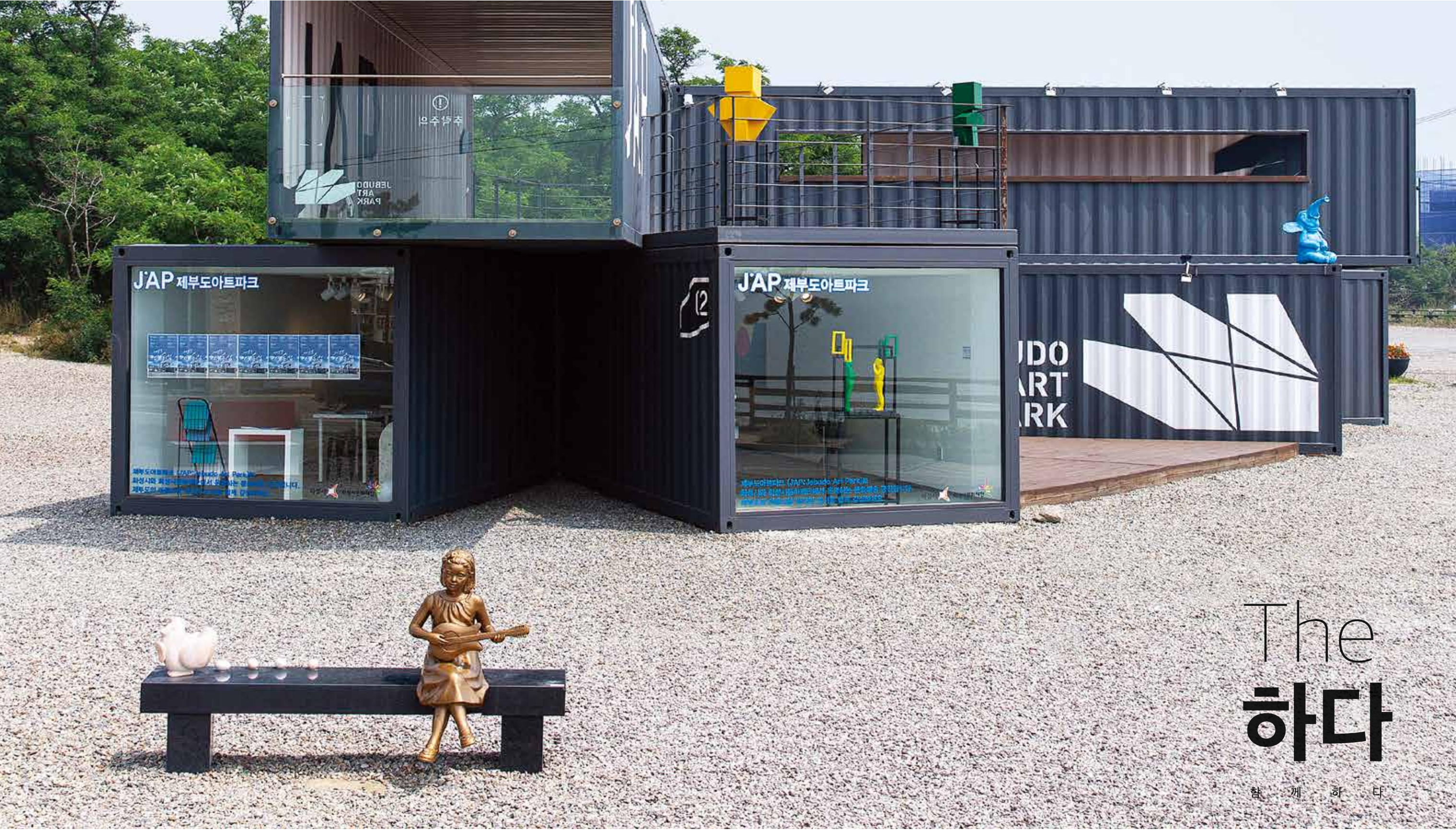
동네 책방지기의
추천 리스트

PEOPLE

화성인의 도시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소식



The
하다

함께하다

화성시문화재단 사람들

지금의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흔히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한다.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 나를 옥여넣고 잘 버텨내는 것이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진짜 내 모습과 생각을 발견하고 표현하려는 시도를 ‘나로서기’라고 한다. 과거의 내가 정해놓은 굴레를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 튀지 않고 묻어가느라 스스로를 가두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글·사진 차유나(기획홍보팀)

교육운영팀 이명희

당신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머지않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문화재단 교육운영팀 이명희입니다. 60년을 살면서 누군가한테 제 소개를 한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워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명희입니다’라고 하면 더 괜찮을까요?

두 번째 소개가 저는 더 마음에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안 되죠?’, ‘이러면 안 될 텐데……’라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제 모습을 고치고 싶었어요. 요즘은 말하는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중이에요. 그러다보니 ‘매사에 긍정적인’이라는 수식어를 저한테 붙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웃음).

이번 호의 주제는 ‘화성NOW’예요. 화성시에 살고 계신 시민으로서 화성시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둘째가 중학교 2학년 때 동탄으로 왔으니까, 이곳에 산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화성에 왔을 때는 내 나이 또래가 없었어요. 동탄신도시가 막 생길 때라 젊은 사람들이 많았었죠. 교통이나 주변 인프라도 부족해서 불편했어요. 아이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가자고 했죠(웃음). 지금은 멀리 안 가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도 많이 생기고, 집 주변에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길도 있죠. 화성시에는 걸을 곳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걷기대회도 많이 열렸어요. 남편과 함께 걷기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죠.



이제 곧 문화재단을 떠나신다고 들었어요. 4년 반 가까이 일하시던 재단을 떠나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많이 아쉬워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정말 재밌어요. 다들 어쩔 그렇게 말을 재미있게 하는지,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너무 웃겨요. 제가 어려워하는 일도 척척 해내고, 역시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웃음).

퇴직 후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최근 건강상 문제로 봉사활동을 자주 못했는데,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체로 저에게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 외에는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육십 평생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서 갑자기 일을 안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재단을 그만두고 나서도 당장은 못 쉬지 싶어요. 집안 ‘일’이라도 해보겠다고 집안 곳곳을 들쭉날쭉하 봐 걱정이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참 답답하게 살았어요. ‘봄에 싹이 나는구나, 가을에 단풍이 떨어지는구나’하며 주위를 돌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나조차도 돌아볼 겨를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년퇴직’을 할 나이까지 오고 나서야 주변을 보게 되는 게 참 후회돼요. 잠겨있지 않은 울타리 속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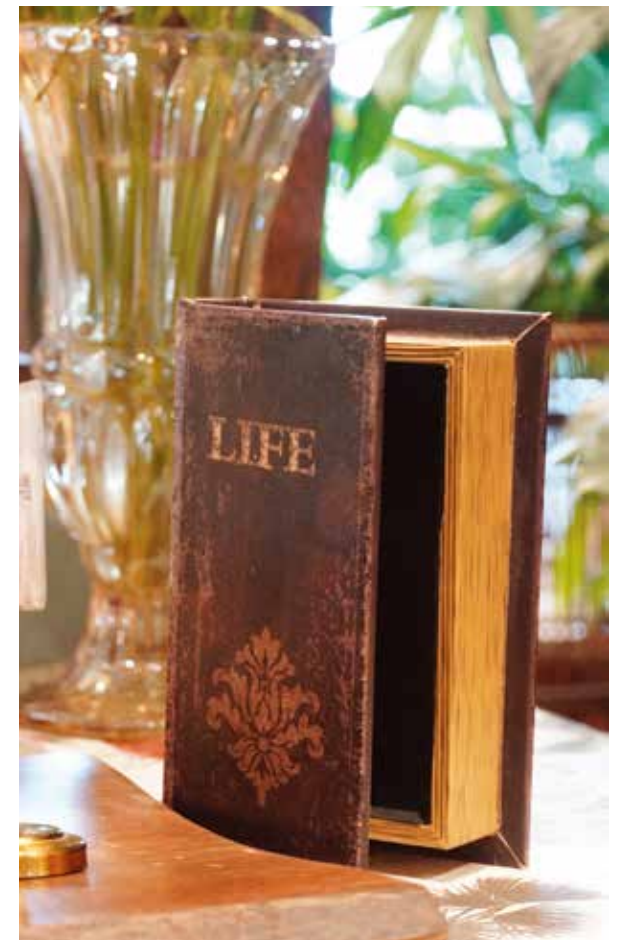
노래를 배우고 싶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언젠가 외출하려고 화장을 하는데 너무 좋은 노래가 들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승훈 씨가 부른 노래였어요. 제목은 뭐였는지 아직도 몰라요(웃음). 그때 이후로 어디 가서 노래 한곡이라도 저렇게 멋있게 부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이라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의지를 가지고 해보는 것도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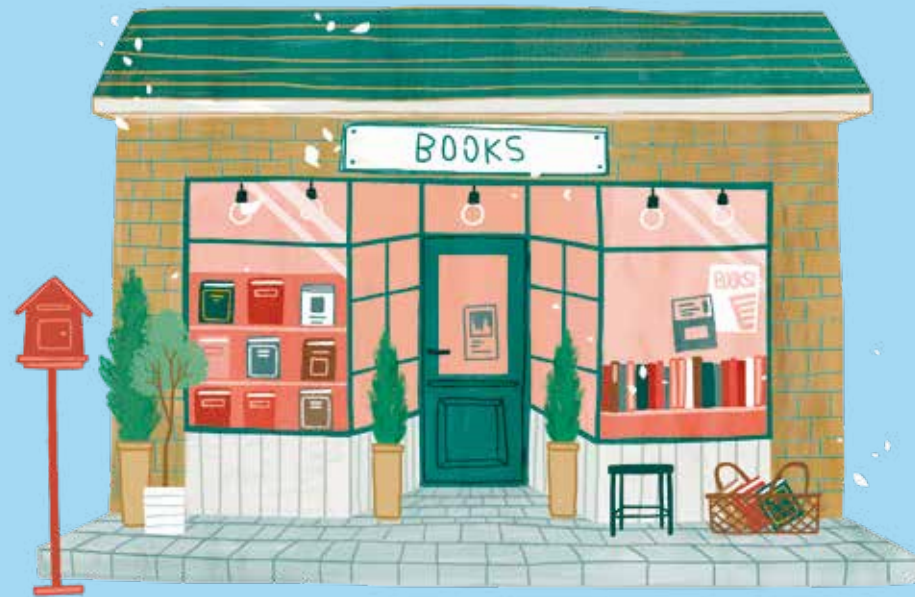
저를 좀 꾸며보고 싶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입는 화려한 무늬 들어간 옷도 도전해보고, 나 혼자서 멀리 여행도 가고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도 거의 듣는 편에 속하고 말을 잘 안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남들이 깔깔거릴 수 있는 유머도 배워서 자신 있게 해보고 싶어요. 그동안 소홀했던 ‘나’를 정성껏 돌봐주려고 해요.

앞으로의 나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와 같은 세대들은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참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한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 책방지기의 추천리스트 화성인의 책을 만나보세요



제작부터 출판까지 작가가 스스로 만드는 책, 독립출판물. 시중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책이 아니어서 더욱 특별하다. 우리 화성시의 이웃들이 만든 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화성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세 권을 추천한다.

글 강진영(모모책방 대표)

딸과 나눈 반짝이는 순간들 《엄마, 밤이 봄이었나봐》, 별날 & 꿈양,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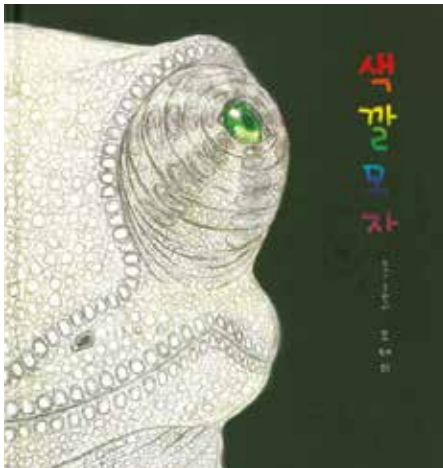
“
“채아야, 꽃 좀 봐. 어젯밤까지만 해도 봉오리밖에 없었는데 아침 사이에 이렇게 활짝 폈네~”
“그러게~ 엄마, 밤이 봄이었나 봐. 아름답다.”
그러게, 봄은 잠깐의 밤사이에도 꽃을 피우는구나.
너도 밤사이 꽃이 되었나 봐. 이렇게나 사랑스러운걸. (본문 22P)
”

《엄마, 밤이 봄이었나봐》는 화성에 살고 있는 엉뚱하고 별난 아이 ‘꿈 양’과 그에 못지않은 엄마 ‘별날’의 생각을 담은 책이다. 꿈 양이 서너 살이던 무렵부터 일곱 살 봄까지의 일상이 시기와 관계없이 담겨있다. 하룻밤 사이에 꽃을 피워내는 봄밤의 신비로운 기운에 감탄하는 꿈 양의 순수함을 책 제목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책이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가 잘못되면 모두 엄마 탓’이라며 모성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엄마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질문과 고민, 그럼에도 단단히 성장해가는 자신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

아이와의 이야기를 담았지만 단순히 아이를 위해 만들어준 책이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 지구사회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별날’만의 진중한 고민이 있었기에 쓰일 수 있었던 책이라 더욱 마음에 와 닿는다.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이야기를 편안히 풀어내고 있다.

내 색깔을 찾는 귀여운 여정

《색깔모자》, 오태미, 도서출판 창조와 지식, 2019



©도서출판 창조와 지식

“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 색깔이 없는 카멜레온이었어.

왜 색깔이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

다시 길을 걷다가 반짝반짝 밝은 해를 만났어.

내가 물어봤지. 색깔모자를 보았니?

”

이 책은 태어날 때부터 몸 색깔이 없던 카멜레온이 몸 색깔을 바꾸게 해준다는 '색깔모자'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담아낸 그림책이다. 책의 주인공인 카멜레온은 꽃과 해, 나무와 비구름을 만나 색깔모자에 대해 묻는데, 그런 질문에 길 위에서 만난 자연은 팔랑팔랑 떨어지는 잎새와 흐르는 빗물 등으로 말 없는 대답을 들려준다. 과연 카멜레온은 색깔모자를 찾을 수 있을까?

어른에게도 동화 같은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손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지만, 사람이며 환경이며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가끔은 슬프고 가끔은 즐거운 날들의 연속이다. 가진 색이 없어 자신의 색깔을 찾아 떠난다는 카멜레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무언가에 쫓기듯 하루를 살고 돌아와 이 책을 펼친 우리에게 카멜레온이 묻는다. “색깔모자를 보았니?”

《색깔모자》는 화성에 살고 있는 오태미 작가의 첫 그림책이다. 작가는 책의 서문에서 “다가오는 삶의 길에서 온 힘을 다해 한 걸음, 온 마음을 다해 한 걸음, 씩씩하게 걸으며 색깔모자를 찾아 떠났던 작가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올 여름 따뜻한 글과 그림으로 가득 채워진 《색깔모자》를 통해 잠시 잊고 지냈던 내면의 물음에 귀 기울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떠난 기록

《아줌마! 왜 혼자 다녀요?》, 만옥, 2017



©만옥

“

나이 마흔을 앞두던 해.

서른을 앞두고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 해.

사회학 전공에 10년간 영상편집을 하다가 서른다섯이 넘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된 내가, 과연 예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해이자 난 대체 누구인가라는 물음까지 생겼던 해이기도 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사십 대를 앞두고 오춘기에 접어든 나는 그 해에 반드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끄는 방향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본문 7P)

”

나이의 앞자리가 바뀔 때 즈음이면 누구나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자아성찰도 베풀치기로 매일 밤 하게 된다. 만옥 작가도 비슷한 기분을 느꼈는지 마흔을 앞두고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아줌마! 왜 혼자 다녀요?》는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하와이로, 도쿄로 여행을 떠나 그 곳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기록한 책이다. 옷이 혼자가 되겠다며 호기롭게 떠난 한 달 살기 여행에서 며칠 못 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처음 사귀 타지의 친구들과 나이와 언어를 넘어 우정을 나누기도 하는 등 인간적인 매력이 폴폴 풍기는 소탈한 여행기가 담겨있다. 책 속에는 글과 사진뿐만 아니라 형형색색의 그림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저자는 화성에 작업실을 두고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기도 하다. 인생에는 늘 변화가 필요하기 마련. 만옥 작가처럼 삶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린다.

모모책방(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오래 3길 7, 1층, 070-4225-5084, @momo__books)

모모책방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독립서점으로 그래픽디자이너 강진영이 운영하는 1인 서점이다. '이웃이 쓴 책' 코너와 '이웃이 만든 공예품' 코너에서 동네소식을 접할 수 있다. 내가 찾는 책은 없지만 나를 찾는 책을 만날 수 있는 현대의 공간이다.

화성인의 도시

집 앞에 모든 편의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사람, 복잡한 건 질색! 한적한 자연이 좋다는 사람, 어디든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람 등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주거스타일을 꿈꾼다. 화성시는 바다, 농촌, 그리고 발전하는 신도시까지 다양한 지역을 품고 있는 도시다. 이 넓은 화성 속 화성인들은 각자의 이유로 이 도시에서 살아간다. 화성인들은 이 도시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도시, '화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화성시에 살며 겪은 소소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연수아 | 동탄 청계동

지친 일상 속 주말의 휴식처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주말은 가급적 부모님이 계신 화성 동탄에서 휴식하며 보낸다. 직장 때문에 벌써 4년째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지친 하루를 혼자 마무리하는 매일은 때로 외롭기도 하다. 그런 내게 주말을 보내는 동탄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안정감 때문인지,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이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간 그리웠던 집밥을 먹고 집 앞 카페에 가서 엄마와 밀린 수다를 한껏 떨고 나면 한 주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이다. 토요일 저녁에는 가족들과 고기를 사 와서 구워 먹거나 외식을 하러 나가기도 한다. 최근에는 동탄역 근처에 멍게와 해삼이 맛있는 횡집이 생겨 우리 가족이 거의 매주 드나드는 단골 맛집이 되었다. 또 1년 전에는 친한 친구가 결혼과 함께 동탄에 자리를 잡아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한다. 가족, 친구와 함께 알차고 느긋한 주말을 보낸 후 다음날 출근을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일요일 저녁이 되면 매번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 내게 화성에서의 시간은 또 다가올 주말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삶의 원동력이다.

이숙한 | 우정읍

쌍봉산 등산 도전기

7년 만에 쌍봉산 등산에 성공했다. 쌍봉근린공원에 갈 때마다 산 정상을 보며 '언제쯤 저 곳에 오를 수 있나?' 하며 멀거니 바라만 보다가 불현듯 시작한 도전이었다. 산 아래에서 백여 미터 가파른 길을 올라가서 불로문 주춧돌에 앉아 끝없이 이어지는 나무계단을 올려다보았다. 용기를 내어 나무계단을 내 나이만큼 올라갔다. 그리고 발목을 쉬게 했다. 좀 쉬다가 다시 일어나 오른손은 밧줄을 잡고 왼손은 지팡이를 짚으며 올라갔다. 그냥 올라가면 힘이 더 들므로 계단의 수를 세며 갔다. 나무계단을 올라가는 동안은 쉴 데가 마땅치 않다. 계단 옆 좁은 방지턱에 엉덩이를 걸치고 잠시 쉬기도 하며 쉬엄쉬엄 올라갔다. 284개 계단을 오르니 고맙고 반가운 벤치가 있다. 나를 위한 쉼터였다. 고생한 발목을 충분히 풀어주었다. 이 반가운 소식을 아이들에게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아이들이 걱정 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산 정상까지는 아직도 반 이상 더 가야할 것 같아 아득했다. 올라온 계단을 내려다보니 '이렇게 그냥 올라오기도 힘든데 가파른 산길에 이 계단들을 설치하느라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들의 노고에 마음으로 감사드렸다. 쉬다 가다 쉬다 가다 마침내 정상의 정자에 올랐다.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았다. 정상에는 4층 높이의 전망대

가 지역사령관처럼 버티고 있다. 전망대까지 오르면 저 멀리 바다와 호수도 보이고 바다를 매립한 넓은 땅도 보일 것 같다. 하지만 발목에 무리가 올 수 있어 마음을 비웠다. 이 지역에 35년 넘게 살면서 쌍봉산 정상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정자와 전망대가 생긴 것도 알지 못했으니, 어찌 이곳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많은 날을 몸의 여러 통증으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으니 딱하기 그지없다. 통증이 나아지면 꼭 정상에 올라가겠노라 결심했었다. 심오 분쯤 걸으면 아픈 발목, 오다리wa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있지만 수술하지 않고 운동으로 이겨내고 있다.

일단 정상에 올랐으니 운동기구들을 한 번씩 체험했다. 그리고 내려가기 전 발목 스트레칭을 충분히 했다. 그럼에도 내려가던 중에 4년 전 발목수술을 받은, 잘 버텨주던 오른쪽 발목에 통증이 왔다. 몸을 돌려 산 정상을 바라보고 왼손은 밧줄을, 오른손은 지팡이를 잡고 거꾸로 씩씩하게 내려왔다. 중간에 주춧돌에 앉아서 발목을 또 풀었다. 이제 백여 미터만 더 가면 된다. 하산하고도 집까지 15분 거리를 여러 번 길가 경계석에 앉았다 가야 했다. 그렇게 나는 첫 번째 쌍봉산 등반에 성공했다.



박명자 | 동탄 산책동
동탄은 화성에 있습니다

6년 전, 내가 처음 발 디딘 동탄은 무척 황량했다. 작은 마트도 한참을 찾아다녀야 했고 뭘 물어보려 해도 사람을 볼 수 없었다. '어린 손주들의 그늘이라도 될까' 하고 40년 살던 서울을 떠나왔지만 바람도 햇볕도 모두 낯선 곳이었다. 한 시간도 더 지나야만 볼 수 있는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이면 콩나물시루가 되어 한 쪽 다리도 옮길 수 없었다. 게다가 동탄의 행정구역이 화성시에 있다는 것까지. 동탄이 살인사건의 그 곳, 화성에 있냐고 물을 때는 기가 죽었다. 부모님의 잘못을 자식에게까지 추궁 당하는 기분이었을까. 꼭 말해야 할 주소 외에는 '화성'을 숨기고 살았다. 하지만 그 상처가 차츰 아물고 있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동탄은 그 전에 급변하고 있다. 널찍한 도로와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건물 속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섰고, 청소년이나 어른에게 제공하는 화성시 무상버스와 실핏줄처럼 엉킨 골목을 구석구석 누비며 다니는 H버스 또한 뚜벅이에겐 안성맞춤이다. 어디 그뿐인가. 흥남파 생가, 국내 최초의 한옥 온실을 갖춘 우리꽃식물원과 정조대왕, 사도세자, 혜경궁홍씨 위패가 모셔진 용주사가 화성에 있다는 사실. 또 궁평항, 전곡항, 제부도는 바다가 그리운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화성의 청량제이다. 특히 동탄호수공원은 우리 집 마당이요, 동탄 주민의 산소공급원이다. 돌멩이를 간질이는 맑은 물소리와 키 재기를 하는 들꽃의 눈인사를 받으며 송방천을 따라가면 노랑부리백로가 점잖은 걸음으로 다리를 옮긴다. 탁 트인 시야, 흔들리는 바람은 호수의 수면을 빗질하느라 바쁘고 이른 햇살이 등을 떠민다. 식구가 불어난 엄마 오리는 한 명이라도 놓칠세라 목청을 돋우며 사방을 분주히 살피는데 심술궂은 잉어 녀석이 물장구를 쳐댄다. 군데 군데 놓인 벤치를 모른 척 지나치다가 비어 있는 그네에 엉덩이를 올리면 세상사 근심 걱정이 툭툭으로 바뀐다. 운 좋으면 볼 수 있는 분수 쇼는 덤으로 얻는 시장 인심이다. 코로나19로 야간에는 볼 수 없지만 그 황홀경은 말해 무엇 하리. 새 건물을 올리느라 분주한 군데군데의 망치소리가 잠들면 주변은 새로운 가게가 또 문을 열 것이다. 길도 집도 사람도 모두 새것인 동네, 그 사이로 볼 수 있는 각종 볼거리는 지구상 어디에도 갖춰지지 않은 별나라는 화성이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만 보아도 그리움이 스멀거려던 내가 나도 모르게 당당하게 말한다. 동탄은 화성에 있다고. 그리고 그 화성에 꼭 한번 다녀가라고.

이재석 | 동탄 반송동
화성은 제2의 고향

해외에서 오랜 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곳이 화성 동탄이었다. 2000년대 초 동탄신도시가 개발될 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언젠가는 화성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연고 하나 없는 동탄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한국에 살 때는 가족들의 생활 중심지가 서울과 평촌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 의견도 그냥 무시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근무지가 평택 사업장으로 발령 나면서 거리가 가까운 동탄을 '우선'으로 거처로 정하게 되었다. 정년 후에는 다른 곳에 정착하게 될 것 같아서 동탄에 뿌리를 내린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낯선 땅도 정들면 고향이라는 말도 있듯이 동탄에 살아보니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동탄북합문화센터가 지척에 있는데 야외공연장에서 맥주를 마시며 재즈 연주를 감상할 수 있고, 독서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도 한다. 노후준비를 위한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활동이 가능한 이곳은 너무나 좋은 문화적 쉼터이다. 이뿐만 아니다. 센터를 둘러싼 반석산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사색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덕분에 재택근무를 할 때에나 휴일에는 동네 산책이 빠뜨릴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조용한 아침, 소나무 숲을 새소리와 함께 걷고 있다면 심신이 정화되는 힐링이 느껴진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사거나, 병원 등에 다니기도 좋아 노후를 지내기에도 큰 불편이 없을 것 같다. 다만, 도시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뿐 아니라 오랜 세월 연륜이 쌓이며 그 도시만의 독특한 '색깔'을 갖게 된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색깔'을 갖춰가기 위한 긴 호흡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삶의 터전을 가꾸고 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전통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성장해나가길 기원해 본다.

강지혜 | 향남읍
화성 동방(방농장)저수지에서

가끔 집에서 멀지 않은 팔탄면 노하리 동방저수지를 가곤 한다. 드넓은 저수지 풀밭에 앉아 가득 핀 연꽃을 바라보노라면 내 마음에 어느새 환한 연등이 켜진다. 일상에 지쳐 무언가 아득해질 때 가까운 동방저수지에 가서 한가득 싱그러운 연잎을 보라고 말하고 싶다. 연꽃처럼 희망도 새로이 봉오리를 맺으리라.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머무르면 마음 정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번지는 풀내음에 미소를 머금으며 환한 내일을 그릴 수 있으리라.



최아람 | 동탄 반월동
집에서 본 밤하늘

집에서 본 밤하늘,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던 달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PEOPLE'은 주제와 관련된 독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글 또는 그림, 사진과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호 PEOPLE 독자공모는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특별한 기념품과 함께 《화분》지면에 이야기를 실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8.9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소식

※ 51호에 실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서남부권
복합문화공간 예술사업
X라는 이름의 아레나 :
화성의 내려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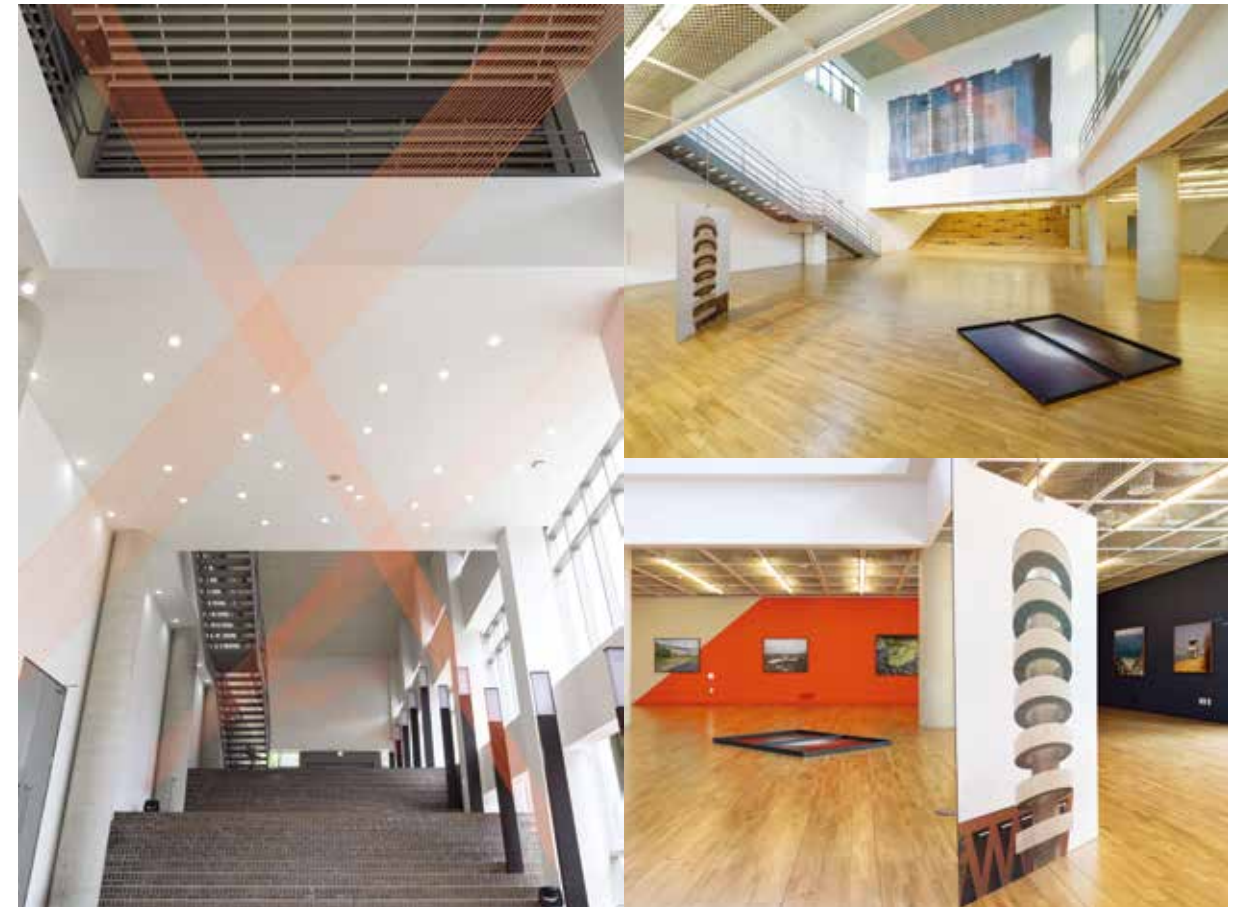
화성시에 대한 역사적, 심리적, 조형적 관점을 강은혜, 김도균, 김신욱 작가를 통해 소개하는 기획전시 <X라는 이름의 아레나 : 화성의 내려티브>가 6월 29일부터 8월 15일 까지 팔탄면에 위치한 로얄엑스에서 열린다.

김도균, 김신욱 작가는 도시 화성이 지니는 복합적인 역사와 정체성, 기억을 혼성적으로 소개하며 화성의 랜드 마크가 될 만한 곳들을 찾고, 도심의 특징, 삶의 터전, 주변 환경에 대한 지점을 해석하고 의미를 모색해나간다.

김도균은 화성의 유의미한 랜드마크 남양성모성지와 매향리의 역사적 인상과 과거 테니스장이 있었던 로얄엑스의 4층 변모과정을 미학적으로 기록했으며, 김신욱은 도심 화성의 주변부와 경계에서 발생한 풍경을 통해 장소와 영역이 지닌 정체성을 모색했다. 그리고 강은혜 작가는 전시공간이자 서남부권의 복합문화공간 로얄엑스 내부 설치 작업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전시 공간을 아우르며 선의 교차와 중첩을 통한 공감각적 관계와 심리적 긴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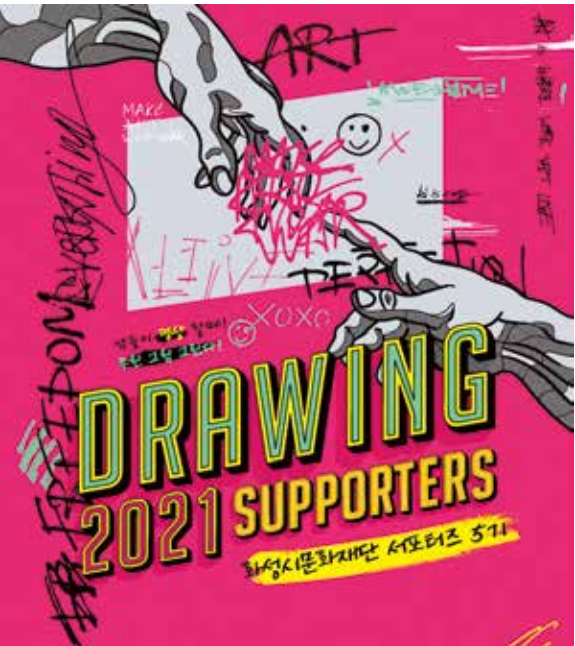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어떤 장소에 거주하며 시간의 지평에 존재하는 특정할 수 없는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형성한 삶의 터전을 장소로서 해석하고 은유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지역문화팀 031-290-4691



©고정균

그림 좀 그리는 화성인 다 모여라!
화성시문화재단 서포터즈 5기 모집



화성시문화재단은 SNS 서포터즈, 영상 서포터즈에 이어 새로운 컨셉의 ‘화성시문화재단 서포터즈 5기’ 운영을 올해 하반기 시작한다. 이번 활동은 일러스트북 제작으로 디자인 프로그램 또는 탭(Tab)을 활용한 일러스트 드로잉 또는 실제 드로잉, 채색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일러스트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다른 서포터즈들과 협업하여 결과물로 일러스트북을 만들어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작품 제작을 위해 공연, 전시, 문화사업 등 화성시문화재단의 대표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한 일러스트 드로잉, 콘텐츠 기획 등 전문교육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 전문가의 멘토링, 교육 등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과 제작비를 지원한다. 7월 중순부터 모집 예정이며 모집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기획홍보팀 031-8015-8115

화성시 지역예술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2021 아티스트 소셜 클럽



화성시문화재단의 <2021 아티스트 소셜 클럽>이 지난 6월 성황리에 시작됐다. <아티스트 소셜 클럽>은 화성시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 사업으로, 예술인과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예술 현장의 정보를 교류하고자 마련되었다. 올해 아티스트 소셜 클럽은 장르별 예술인 간담회, 예술인을 위한 행정·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지난 6월에 열린 1차 간담회 참여 예술인들은 ‘화성시 예술지원금 규모의 확대 필요성’, ‘예술 활동 공간 부족에 대한 개선 필요’, ‘화성시 활동 청년 예술가와의 소통 기회 활성화 희망’ 등의 주제를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아티스트 소셜 클럽>은 올해 하반기까지 예술 행정 실무교육을 더 실시해 예술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장르별 예술인 간담회와 성과 공유를 통해 심도 있는 의견수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예술지원팀 031-290-4603

자주 독립의 희망과 기쁨을 함께하는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에서는 매년 광복절이면 나라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화성의 독립운동과 순국선열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독립운동가 파우치 만들기, 독립운동가 명언 캘리그라피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친구, 연인들과 보람된 하루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왔다.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광복절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2021년에는 선열들이 국난을 극복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열어간 것처럼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낮에는 무궁화 바람개비, 태극기 액자 칠하기, 만세길 코딩 체험 등을 제공하며, 저녁에는 역사어린 이합창단 공연, 창작뮤지컬 <단 하나의 꿈>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 하나의 꿈>은 3·1운동을 모티브로 만든 창작 뮤지컬로서 3·1운동에 참여한 이름 없는 수많은 선열들을 되새기고 자유와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을 받아 진행되며 사전예약 정보는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홈페이지(www.je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 2020년 독립전쟁 선포의 해 100주년을 이어가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문의 독립운동문화팀 031-366-1604

화성시립도서관
제7회 독서감상문 공모전



화성시립도서관에서 함께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7회인 이번 공모전은 아동·청소년·일반 총 3개 부문으로 운영하며 화성시민 또는 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부문별로 선정된 도서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선정 도서는 1차로 시민과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를 모아 선별하고, 2차로 사서와 시민도서관정단이 논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도서는 3권으로 아동 부문 《긴긴밤》(루리, 문학동네어린이, 2021), 청소년 부문 《유원》(백은유, 창비, 2020), 일반 부문 《복자에게》(김금희, 문학동네, 2020)이다. 공모작 접수는 7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hscitylib.or.kr>열린마당>독서감상문 공모전)나 우편접수(화성시 노작로 134, 3층 도서관독서문화진흥팀) 혹은 방문접수(가까운 화성시립도서관)를 통해 진행된다. 공모 작품은 1, 2차 심사를 거쳐 9월 중 부문별 대상(화성시장상), 최우수상·우수상(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상) 세 분야로 시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문의 도서관독서문화진흥팀 031-8015-8273

어린이 감성 쓱쓱 판타지 인형극
씨어터 키즈 온!



화성시문화재단은 2021년 유아·어린이 시리즈의 두 번째 공연인 <씨어터 키즈 온!>을 8월 28일(토) 오전 11시, 오후 3시 반석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지난 6월 국내 최고의 퍼포먼스 브라스 그룹 퍼니밴드가 출연한 <클래식 키즈 온!>을 관객들의 호평 속에 마친 후 열리는 두 번째 어린이 시리즈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판타지 음악 인형극이 펼쳐진다. 장난을 잘 쳐서 짓궂기도 하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기도 하는 우리나라 고전설화의 캐릭터 '도깨비'들과 주인공 '흥이'의 우정, 그리고 소중한 가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물까비, 수수까비, 귀여우비, 예끼요비 등 음악을 좋아하는 멋진 도깨비들이 펼치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는 건 어떨까? 티켓오픈 및 자세한 정보는 화성시문화재단 아트홀 홈페이지(art.hcf.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공연기획팀 1588-5234

2021 찾아가는 공연장
지나가다, 가



화성시문화재단의 '찾아가는 공연장'이 올해도 수준 높은 버스킹 공연 <지나가다, 가>로 화성시 곳곳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찾아가는 공연장은 동탄, 향남 등의 공원과 제부도 등 화성시 시민들이 있는 여러 장소로 찾아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공연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문화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사업이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설 자리를 잃은 전문 공연예술인들에게 계속해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다. 오는 7월에도 뮤지컬 갈라, 디제잉, 서커스, 재즈밴드, 비보잉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더운 열기가 한풀 가신 여름날의 저녁시간, 활기 넘치는 공원 또는 거리에서 재미있고 유쾌한 공연과 함께 지친 일상을 환기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나가다, 가>의 매월 공연일정은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hcfart)를 통해 공개한다. 현장공연을 볼 수 없어도 아쉬워하지 말자.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화성시 명소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시민문화팀 031-290-4633

화성 독립운동! 학교에서 만나요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학교연계교육 운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던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의 학교연계교육을 다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학교연계교육은 화성 독립운동사와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을 사회 및 역사 과목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제암리에서 듣는 3·1운동이야기', '3·1만세길로 떠나는 시간탐험 1·II', 'AR속 숨겨진 화성3·1만세길'이 현장체험교육, 온라인교육, 찾아가는 교육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학교연계교육 '제암리에서 듣는 3·1운동이야기'는 유물을 탐구하며 진행하는 미션형 교육프로그램이다. '만세길로 떠나는 시간탐험 1·II'는 1919년 4월 3일 우정·장안지역에서 있었던 만세운동길을 복원한 장소에서 일부 현장답사와 만세길 코딩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2021년 신규 프로그램인 'AR속 숨겨진 화성3·1만세길'은 중학생 대상으로 유해지 현장에서 증강현실(AR)을 통하여 장안·우정 면사무소, 화수경찰관주재소 등을 3D로 관찰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공문을 통하여 학교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홈페이지(www.je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독립운동문화팀 031-366-1604

평범하고 소소하게 예술로 놀기
2021 예술키트 서로서로



심심했던 어제, 무료한 오늘을 보냈다면 평범하고 소소한 예술이 담긴 '예술키트 서로서로'와 함께 즐거움을 찾아보자. 예술키트 서로서로 사업은 화성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0년부터 지역문화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자개 모빌, 수제 비누, 달력 꾸미기 키트를 화성만의 색깔을 담아 제작해 인기를 끌었다. 오는 7월, 1차 <그러서 화성 속으로>는 화성시 서남부 자원으로 꾸미는 DIY 무드등 키트를 배포한다. 배포 일정은 7월 3주차부터 8월 1주차까지 예정이며, '큐레이터와 함께 만드는 빛나는 화성의 조각'을 주제로 10명 내외 소규모 무료 특강도 진행한다. 특강 참여자들의 결과물은 오는 10월, 제부도아트파크에서 전시로 선보이게 된다. 올 하반기 9월 3주차부터 10월 1주차에 배포예정인 2차 <걸어서 화성 속으로>는 '내가 만든 말과 화성시 걷고 싶은 곳이 담긴 판으로 즐기는 DIY 윗놀이 키트'로 한가위에 가족과 함께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키트를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일에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hcf.or.kr)에 공지된 신청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주소가 확인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키트는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백신 접종자는 신청 시 접종확인증을 첨부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예술키트 세부사항 및 온라인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7월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 지역문화팀 031-290-4692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장소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문의 031-8015-8112

화성시문화재단 운영시설

- 동탄북합문화센터
- 화성시미디어센터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 만세길방문자센터
- 화성아트홀
- 반석아트홀
- 누림아트홀
- 제부도 아트파크

도서관

- 남양도서관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 왕배푸른숲도서관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 봉담도서관
- 병점도서관
- 삼괴도서관
- 송산도서관
- 송린이음터도서관
- 정남도서관
- 진안도서관
- 태안도서관

작은 도서관

- 샘내작은도서관
- 기아행복마루도서관
- 비봉작은도서관
- 마도작은도서관
- 팔탄작은도서관
- 양감작은도서관
- 호수나래작은도서관

문화시설

- 노작홍사용문학관
- 로알앤컴퍼니 아울렛
- 모두누림센터
- 유앤아이센터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 소다미술관
- 엄미술관

카페

- 다락
- 다원
- 달팽이그림책카페
- 손커피연구소
- 차마시는뜰
- 카페 그루비
- 카페쉬시오
- 에데니코 커피 로스터스

호텔

- 라비돌리조트
- 푸르미르호텔

기타

- 독립서점 모모책방
- 동탄제로웨이스트샵 시바른상점

온라인 구독

웹진 《화분》 hwaboon.hcf.or.kr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무가지입니다.
개인 구독자를 위한 배송서비스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배포처 방문 또는 온라인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HELLO SUMMER



화성시문화재단 SNS채널을 통해 다양한 화성시 문화소식을 만나보세요.
각 SNS 검색창에 '화성시문화재단' 혹은 'hcfart' 를 검색하시면,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SNS계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으로 색칠해보세요



© 권석란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21.4.22~2022.4.21

화성동탄우체국
제40056호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북합문화센터 3층
경영기획국 기획홍보팀 <화분> 담당자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매거진 《화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신 내용은 더 좋은 《화분》을 만드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 ① 매우 좋다
- ② 좋다
- ③ 보통
- ④ 좋지 않다
- 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5.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VOL.51 | HWASEONG NOW
2021 SUMMER
문화를 담는 빛나는 그릇

발행처	(재)화성시문화재단
발행인	이종원
편집국장	서관석
편집팀장	정회봉
기획·편집	차영은, 차유나, 디자인봄
디자인·인쇄	디자인봄
홈페이지	hcf.or.kr
주소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전화	031-8015-8112
팩스	031-8015-8129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은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원고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본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종이인 그린라이프지를 사용합니다.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14	INTERVIEW	타악기 연주자 진유영
32	WALK	시작하는 사람, 천경우 작가
60	PEOPLE	화성인의 도시